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주홍글자』 : 개인과 사회의 갈등과
 펼의 역할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국어교육과 영어전공
안 영 자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주홍글자』에서 규범을 어긴 주요 등장인물들이 억압적인 사회와 갈등을 겪는 양상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에 대한 호손의 입장을 살펴보고, 사회와의 갈등과 해소에서 어린아이 펄이 하는 역할을 각 인물과 펄의 관계를 통해서 고찰한다. 또한 펄의 역할에 호손의 아동문학작품에 나타나 있는 아이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호손은 소설의 서두에서 감옥 문 앞에서 발견된 장미가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으로 인한 이야기의 우울함을 완화해주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히지만 헤스터의 묘석에 남겨진 음울하고 그림자보다 더 어두운 주홍글자 A로 소설을 끝맺는다. 『주홍글자』의 집필을 끝낸 호손은 소설이 너무 우울하여 독자들이 작가인 자신까지 음울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주역들이 사회와 갈등을 겪으며 외롭고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죽는 이 어두운 이야기의 결말에서 그들은 모두 사회와 화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 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설정에는 개인과 사회의 화해를 통한 사회의 발전과 존속을 바라는 호손의 기대와 아이들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논문을 개관하는 제1장에서는 우선 펄이 『주홍글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펄은 주요 등장인물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그들이 갈등을 겪던 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침내 화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펄의 이런 역할에는 아동문학작품에 나타난 어린이에 대한 호손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사회와의 갈등과 화해의 양상이 소설이 집필된 19세기 중반의 복잡한 사회 정치적 상황의 산물이라는 점이 제시된다. 제2장은 『주홍글자』의 역사적 배경이 17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호손의 당대 사회의 관심사가 투영된 것으로 보는 신역사주의 관점의 작품이해를 그와 다른 작품해석과 비교하여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설에 나타난 세 주요 인물들이 죄를 지어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되지만 결국은 사회와 화해하는 결말을 통하여 호손이 보여주는 당대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사회에서 떨어진 인물들이 필로 인하여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고 마침내는 화해하게 되는 소설의 내용을 살펴 필이 그들을 사회화시키는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밝힌다. 헤스터는 혼자 사색하는 생활에서 급진적인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지만 필을 양육해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사회의 규범을 충실히 따른다. 사회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딤즈데일과 다른 곳으로 떠날 결심을 하고 주홍글자를 떼어버렸던 그녀는 필 때문에 다시 그것을 달게 된다. 필은 직관적인 능력으로 죄를 숨기고 양심의 가책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딤즈데일에게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아버지임을 밝힐 것을 지속적으로 암시한다. 딤즈데일은 결국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갈등에서 벗어난다. 칠링워스는 죽으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필에게 물려줌으로써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과 화해하고 스스로 쌓아온 사회에 대한 벽을 허문다. 제4장은 호손이 평생에 걸쳐서 쓴 아동문학작품에 표명된 아이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필의 역할에 반영되어 있음을 살펴본다. 그는 평생에 걸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을 쓰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고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아이들에게 내면화시키고자 하였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역할 모델을 제시해야 하고 또한 아이들의 순수한 도덕성의 영향이 어른의 도덕성을 되찾게 해줄 수 있다는 호손의 인식은 『주홍글자』에 나타난 필의 역할과 일치한다. 각 장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5장에서 다시 요약된다.

주요어: 갈등, 화해, 사회화, 신역사주의, 세관, 아동문학
학 번: 2011-21528

목 차

국문 초록	i
제1장 서론	1
제2장 개인과 사회	10
제3장 펄의 역할	51
1. 펄과 헤스터	66
2. 펄과 덤즈데일	73
3. 펄과 칠링워스	79
제4장 아동의 사회적 역할과 아동문학에 대한 호손의 관심.....	86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5
Abstract	112

제1장 서론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주홍글자』(*The Scarlet Letter*)에서 헤스터(Hester Prynne)의 간음죄는 그녀가 낳은 딸 펄(Pearl)로 인해 세상에 드러난다.¹ 남편이 함께 이주해 오지 않은 상황에서 헤스터가 아기를 낳은 것은 자신이 간음한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 인하여 헤스터는 간음죄를 상징하는 주홍글자를 평생 가슴에 달아야 하는 징벌을 받게 된다. 죽을 때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 받는 치욕 속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헤스터가 간음의 상대 남자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덤즈데일(Arthur Dimmesdale)의 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와 그것을 털어놓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헤스터에 못지않은 내면의 고통을 겪는다. 칠링워스(Roger Chillingworth)는 아내 헤스터를 뉴잉글랜드(New England)로 먼저 보낸 후 뜻밖의 사고로 뒤늦게 그곳에 도착한다. 마을에 당도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아내가 간음죄를 나타내는 표식을 가슴에 단 채로 아기를 안고 처형대에 서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배신감을 느낀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평생을 복수에 매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펄의 존재는 헤스터의 간음죄를 드러내고, 죄를 숨긴 덤즈데일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칠링워스를 복수의 화신이 되게 하는 등 이 작품을 구성하는 사건과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주홍글자』의 독해는 주로 세 주요 등장인물, 곧 헤스터, 덤즈데일, 칠링워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펄은 부수적인 인물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렇지만 펄은 헤스터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소외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 동시에 이들이 유폐된 소외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와 화해를 이루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이 세 인물들의 비극적 운명이 얽히고설키는 삼각 구도로

¹ *The Scarlet Letter*의 인용은 본문의 쪽수만 표기함.

짜여 있다고 할 때, 바로 그 구심점에 펠이 놓여 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펠은 『주홍글자』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인물이다.

일찍이 바바라 갈리츠(Barbara Garlitz)는 1850년부터 1955년까지의 연구 성과에서 펠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는지를 요약해 보여줌으로써 그녀의 상징성과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작품 해석에서 긴요함을 상기시켜준 바 있다. 펠은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라는 극찬에서부터 “속박되지 않는 어린 악마”라는 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평가되어 왔다(Giles 76; Loring 494). 그러나 헤스터나 덤즈데일을 소설의 중심인물로 보는 관점에서는 펠의 진면목이나 소설의 전반적 내용과 그녀와의 연관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펠의 모습 중 어느 특정한 면만 부각되고 다른 면은 사장되어 버리고 만다. 펠의 다양한 면모를 파악하고자 노력한 근래의 연구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앤 맥나마라(Anne M. McNamara)는 덤즈데일이 갑자기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한 원인으로 펠을 지목한다. 펠을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시켜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덤즈데일이 헤스터와 도망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펠은 헤스터의 가슴에 달려있는 주홍글자와 목사의 가슴에 손을 얹는 습관에 호기심을 보이며 두 가지 사실을 연결 지어 궁금해 한다. 펠이 그들 셋이서 같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덤즈데일이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아버지임을 밝히려는 암시이며 덤즈데일은 반복되는 펠의 언행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펠의 암묵적인 요구로 인하여 덤즈데일은 구원을 받게 되고 죄를 고백한 그에게 펠은 딸로서 아버지에게 입맞춤을 한다(537).

프래니 누델먼(Franny Nudelman)은 주홍글자와 펠의 역할에 주목하여 펠이 헤스터를 사회화시키는 주홍글자의 기능을 완수하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교도사회가 헤스터에게 주홍글자를 달게

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녀의 잘못을 벌하자는 데 있었다. 그러나 주홍글자를 달고 착실하게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보이는 헤스터는 실제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단죄하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헤스터가 사회의 규범에 내면적으로 승복하지 않는 데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녀의 모범적인 행실로 글자 A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면서 주홍글자는 징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것은 헤스터를 사회화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오히려 헤스터에게 사회의 규범을 따르게 한 것은 필이었다. 필을 키우는 과정에서 헤스터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이를 통해서 사회에 드러나고 이는 주홍글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헤스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헤스터는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게 된다(194).

리처드 브로드헤드(Richard H. Brodhead)는 호손이 헤스터, 덤즈데일, 칠링워스 등 소설의 중심인물들을 부각시키고 죄에 대한 그들의 대응에만 주목하면서 다른 등장인물들은 단역에 그치고 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헤스터와 덤즈데일이 청교도사회를 떠나기로 하는 숲 속의 극적인 장면에서 실제 필과 물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필의 구체적인 모습에 호손의 딸 우나(Una)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으나 필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헤스터의 소외와 저항과 절망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분석한다. 혼란을 겪는 아이로 그려지는 필은 결국 헤스터의 죄의 상징으로 주홍글자가 상징하는 복잡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Brodhead, *Hawthorne* 51, 55-57).

필은 헤스터와 덤즈데일의 죄의 결과로 태어나서 그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상기시켜 참회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위의 연구들에서는 필의 이런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덤즈데일과 필, 또는 헤스터와 필과의 관계만이 부각되면서 다른 인물들은 무시되고 그들의 역할이 규명되지 않는 것은 소설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각 인물들의 역할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숲 속 장면에서 등장하는 필의 모습만으로 그녀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도 복잡한 펄의 모습을 단순화시켜 전체 내용과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헤스터, 덤즈데일, 칠링워스는 『주홍글자』의 세 주역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억압적인 사회에서 소외되어 고통스럽게 살지만 결말에서 모두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모종의 화해를 이루면서 최후를 맞는다. 그들은 모두 개인과 사회의 갈등 문제를 각자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결국 사회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그 지배적인 규범에 순응하는 길을 선택한다. 이들이 사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데에는 어린아이 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펄은 헤스터를 사회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덤즈데일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칠링워스 또한 펄로 인하여 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펄이 이런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데에는 어린이의 교육과 어린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호손의 부단한 관심이 자리하고 있다.

호손은 평생에 걸쳐 아동을 위한 작품을 썼다. 청교도 조상들이 본국정부와 겪던 갈등을 다룬 『할아버지의 의자』 (*Grandfather's Chair*), 유명 인사들의 어린 시절을 다룬 『어린이를 위한 위인 이야기』 (*Biographical Stories for Children*),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어린이를 위한 놀라운 이야기』 (*A Wonder Book for Girls and Boys*) 등이 그것이다. 그는 아이들을 주인공이나 독자로 하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사회적 가치가 내면화”될 때 사회가 유지 발전된다고 생각했다(Sanchez-Eppler 144). 호손은 아이들의 양육 과정에서 그들의 선한 본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아이들의 타고난 때 묻지 않은 도덕성이 어른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도 믿었다. 아이들에 대한 호손의 이런 기대에는 당대 미국사회의 아동관이 반영되어 있다. 청교도 시대에는 원죄설에 입각하여 어린이들 역시 타락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호손이 살았던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루소(Rousseau)를 비롯한 교육학자들과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어린이의 본래적 순진무구성이 강조되었다. 아동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양육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청교도시대에는 아이들의 타고난 사악한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 엄격한 훈육이 강조되었다면 호손의 당대에는 순진무구한 아이의 본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교육의 초점을 이루면서 그 방법으로 대화나 독서가 중시되었다(Valenti 5).

이런 변화는 어린이 양육과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당시 미국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개혁 의지와 개혁 운동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에서 독립한 신생독립국으로서 미국의 진보와 ‘명백한 운명’, 인류의 완전성을 믿는 낙관적 견해는 교육개혁운동, 도덕개혁운동, 공동체운동, 금주운동, 노예제폐지운동 등 민주적 계몽주의 프로젝트로, 제도교육 외에 자발적으로 생겨난 시민들의 협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실현되어 가고 있었다. 당시에 인기를 누리던 보수적인 주류 문학작품들에는 진취적이고 낙관적인 사회개혁운동의 대의가 잘 반영되어 있다(Reynolds, D.S. 55).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자부심과 미국의 독자성, 그리고 미국의 사명에 대한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적 애국주의는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세대를 위한 미국만의 독자적인 문학작품의 필요성을 자각시켰다. 이런 어린이를 위한 문학작품의 중요한 목적은 미국의 영광스런 전통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시킬 미래의 애국적 시민을 양성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부분적으로는 미국적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사회개혁운동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Crandall 3-5). 호손의 아동문학작품도 이런 사회적, 문학적 흐름 속에서 어린이의 사회에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쓰인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아이들에 대해 가졌던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필의 인물 창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목하고자 한다.

미국문학에서 반복되는 주제의 하나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이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지향하면서도 사회적 결속을 이루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제기하는 가장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 이념과

현실의 괴리가 날로 심화되고 있던 19세기 중엽의 미국문학에서 이 문제는 복잡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호손을 비롯하여 에머슨(Emerson), 소로우(Thoreau), 멜빌(Melville), 휘트먼(Whitman) 등 19세기 미국문학의 주역들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한 개인주의를 이념의 차원에서 선양하면서도 그것을 배반하는 현실의 모순과 사회적 긴장 속에서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사회의 현실과 민주주의의 이상 사이의 괴리에서 새로운 이상 사회의 건설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국주의, 노예제, 빈부의 격차 등으로 점철된 미국의 현실은 미국적 삶의 양식과 근대화에서 민주주의 이념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1837년에 발생한 심각한 경제공황으로 중산층이 파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과 방랑의 삶으로 내몰리게 된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드러나는 그러한 시장경제의 이중성은 근대화 과정의 방향과 목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풍자를 불러온다. 개혁문학도 신생공화국에 대한 낙관주의적 견해에 기반을 둔 사회개혁운동의 성격을 띠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개혁문학과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면서도 이를 빌미로 인간의 타락한 행동과 어두운 정신세계를 파헤치고 자극적으로 묘사하는데 치중하는 선정적인 ‘비도덕적인 개혁문학’(immoral/dark reform literature)으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개혁문학작품들은 극단적인 선정성을 추구하고 기존의 가체체계에 대한 전복적인 태도를 보여 보수적인 도덕주의를 표방하던 주류 개혁문학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비도덕적 개혁문학은 인간과 사회의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고 개혁과 진보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호손이나 멜빌 같은 19세기 미국문학의 주역들이 남북전쟁 전의 보수적이고 도덕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반대되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품을 집필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작품에 드러나는 다의성이나 도덕적으로 불명확한 태도의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Reynolds, D.S. 54).

앞서 인용했던 브로드헤드는 『주홍글자』가 시작되면서 헤스터가 등장하기 전에 청교도 여인들의 죄인에 대한 반응이 제시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여 『주홍글자』가 등장인물들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주홍글자는 간음을 저지른 죄인인 헤스터에게 엄격한 청교도사회의 권위를 보여주는 체제조치이지만 헤스터는 그녀만의 독특한 사회적 활동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 놓는다. 그녀가 사회에서 부과한 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소설은 헤스터와 사회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이 갈등은 구속, 안정, 정통적 교리를 지지하는 경향과 자아의 욕망, 필요, 능력 등을 표현하고 인정하는 경향 사이의 갈등으로 사회적 역사적 성격을 띠던 소설의 관점을 개인적 심리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주홍글자』에서 호손은 그가 만들어낸 사회적 심리적 실체인 인물들과 청교도 공동체가 주고받는 영향, 등장인물들의 감정, 사고, 심리적 갈등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중심인물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그려낸다. 그리하여 소설은 사회적 역사와 심리적 활동이 서로 역동적으로 교류하는 양상을 띠게 되고 그 결과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청교도 여인들은 작가가 살던 19세기 여인들과 비교되면서 거칠고 남성적인 초기 청교도사회적인 특징을 보이고 청교도들은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법의 엄격함이나 권위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점들은 벨링햄(Bellingham) 지사의 집을 묘사하는 데서 나타나는 역사적 정확성과 함께 브로드헤드가 이 소설을 17세기라는 특정시대의 청교도사회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44-49).

그러나 최근의 신역사주의적 시각에서는 『주홍글자』의 배경이 17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이 쓰인 1850년대 남북전쟁 이전(antebellum)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신역사주의적 관점에서는 『주홍글자』가 청교도사회와 개인의 갈등을 극화시키면서 남북전쟁 직전의 미국의 상황과 당대의 이데올로기와 연관을

맺고 있다고 분석한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청교도사회와 헤스터의 갈등이 애매한 화해로 결말을 맺는 것은 사회와 개인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전체적 질서가 와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당대의 복잡한 정치적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데, 곧 노예제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에서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남부 지배층의 사적 이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암묵적 합의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홍글자』에 당대 사회에 대한 호손의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신역사주의 비평을 근거로 하여 소설의 중심인물들과 사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호손은 「세관」(“Custom House”)에서 자신이 겪은 정치적 경험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하던 시기에 그가 느꼈던 혁명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혁명적인 각성을 하면서 더욱 불행해지는 헤스터를 통해 표현된다. 간음죄로 주홍글자를 달게 된 헤스터는 자신을 기피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필을 키우면서도 겸허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쫓값을 치른다. 그렇다고 해서 헤스터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한 것은 아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선을 행하는 “속죄행위는 참회하지 않는 방책”(penance as a refuge from penitence)으로 이용된다(Bercovitch, *The Office* 6). 그녀는 사회와 떨어져 지내면서 오히려 자신을 별하는 사회의 모순을 보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혁명적인 사고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나 덤즈데일이 죽은 후 필을 데리고 뉴잉글랜드를 떠났던 헤스터는 「결말」에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청교도사회의 상징인 주홍글자를 달고 상담가로 살아간다. 헤스터의 각성은 개인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경직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지만 그녀의 타협은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개인의 인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소설의 또 다른 주역인 덤즈데일, 칠링워스 또한 억압적인 사회에서

소외되어 고통스럽게 살지만 결말에서 이들은 모두 사회와 화해하면서 죽는다.

공동체의 규범을 어기고 배척당하거나 내면적으로 고통 받으며 사회와 갈등을 겪는 인물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소설의 전개과정에는 호손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간음죄로 단죄 받는 헤스터, 죄를 털어놓지 못하고 비밀 때문에 고통 받는 댄즈데일, 그리고 정체를 숨기고 타인의 내면을 엿보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칠링워스는 모두 사사로운 자아에 사로잡혀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용인 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사회와 떨어진 이 인물들이 세상에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는다. 결말에 이르면 이들은 사회의 지배가치를 받아들이며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려진다. 『주홍글자』에서 중심인물들과 사회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마침내 화해하는 과정에 어린아이 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홍글자』가 집필된 당시 사회에 대한 호손의 인식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는 양상을 살펴보고, 사회와 갈등을 겪는 개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개인과 사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보고자 한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는 사회에서 중심인물들이 겪던 갈등과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펠이 하는 역할을 세 주역들과 펠의 관계를 통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펠은 죄를 지은 세 인물을 사회화시키는 주홍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펠의 이런 역할과 호손의 아동문학작품과의 연관성이 검토될 것이다. 그는 사회의 안정과 존속에 아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사회의 규범과 지배가치를 불어넣고자 하였으며 펠의 역할에도 그의 이런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제2장 개인과 사회

로스 머핀(Ross C. Murfin)은 「신역사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글의 서두에서 『주홍글자』야말로 신역사주의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소설이라고 단언한다(330). 이 소설이 당대의 가장 공신력 있는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과 호손이 정권교체로 세관의 검사관 직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 소설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다.² 신역사주의를 표방하는 비평가들은 문학작품은 그것이 쓰인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주홍글자』의 역사적 배경은 17세기 미국의 보스턴이지만 그것은 19세기 미국사회의 의제와 가치관이 투영된 공간이며 등장인물이나 사회의 모습에는 17세기 청교도사회의 모습보다 호손이 이 소설을 쓰던 시대의 사회상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진 비평가들은 「세관」이 쓰인 역사적 시기에 주목한다. 『주홍글자』의 시간적 배경은 1642년부터 1649년까지의 기간이지만 「세관」의 시간적 배경은 1850년경이다.

『주홍글자』의 서문 역할을 하고 있는 「세관」에서 호손은 그곳의 감독관으로 근무했던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민주당원(Democrat)이었던 그는 고향인 세일럼(Salem)의 세관에 감독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정권이 바뀌어 휘그(Whig)당이 집권하면서 관직을 박탈당한다. 그는 세관에서 면직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주홍글자』를 집필한다. 그는 세관에 근무하다가 오래 전의 감독관 퓨(Surveyor Pue)가 남긴 주홍글자에 관한 기록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역사적 기록에 근거하여 『주홍글자』를 쓰게 된다. 그는 이 소설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사실이며 작가의 창작이 아니라 편집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힌다. 「세관」을 쓴 이유가 자신의 정적들을 비난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작품을 쓰게 된 내막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² 머핀은 Caleb Snow의 *History of Boston*을 당대의 대표적인 역사의 예로 들고 있다.

「세관」에서 호손은 자신의 면직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주홍글자』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감독관 퓨와 그가 남겼다는 자료는 호손의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호손이 세관에서 정치적 이유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이를 억울해한 것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Franzosa 387) 평론가들은 「세관」에서 면직당한 그가 『주홍글자』를 쓰면서 인물들과 배경에 소설을 쓰던 시기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그 현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투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신역사주의 비평 이전에도 데이비드 스토우크(David Stouck)나 니나 베임(Nina Baym) 등은 「세관」의 의미에 따라 『주홍글자』의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작품에서 차지하는 「세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55, 265). 그러나 이들은 『주홍글자』와 「세관」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이나 그 의미에 주목하기보다 등장인물이나 사건의 성격에서 두 부분이 갖는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스토우크는 「세관」과 『주홍글자』에 작가의 소외감과 책임의식이 스며있다고 주장한다(255). 소외의 문제는 「세관」과 『주홍글자』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세관」에서 화자는 소외된 상태의 작가로서 독자와의 진정한 의사소통을 원하는 욕구에 대해 말한다. 평소에 친한 친구에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화자는 친한 친구보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해줄 독자를 염두에 두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주변이나 자신에 대해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본성을 공유한 독자”와 진정한 교감을 나누기를 원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베일 뒤에 가린다”고 말한다(7). 스토우크는 소설에서 화자의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이 베일 뒤에 숨는 작가의 태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자신의 위치를 창작자가 아닌 편집자로 규정하는 것도 화자의 입장을 모호하게 한다. 작가로서의 책임 있는 권위를 포기함으로써 그는 인물들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벗어난다. 작품에 나오는 세

인물 모두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화자는 그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가 없다. 글을 쓰는 작가가 세관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소외감을 화자의 위치에서 공동체에서 벗어난 세 인물과 동일시하면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264-65). 헤스터는 감각적이고 자연스러운 본능을 중시하면서 인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규범을 어겨 사회에서 배척당한다. 청교도사회의 지도적 인물인 담즈데일은 죄를 숨기고 내면적이고 영적인 고통에 빠져 사회와 교류하지 못한다. 칠링워스는 뛰어나 학식과 의술을 오로지 복수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포기한다. 감각적 본능, 영적인 내면, 뛰어난 지성을 대표하는 각 인물은 공동체에 통합되지 못하는 소외된 삶을 산다.

베임은 호손이 글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직을 받아들였으며 「세관」은 호손이 소설가(romancer)로서의 운명을 피해보려고 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는 심리적인 자서전 또는 자서전적인 소설이라고 말한다. 「세관」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정을 설명하면서 그녀는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로 보고자 한다. 「세관」이 『주홍글자』의 일부라기보다 『주홍글자』가 「세관」의 일부로 들어맞는다는 것이다.³ 여기서 ‘주홍글자’는 작가에게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고 그의 작품이기도 하다. 그것은 호손이 세관에서의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상상력으로 빚어낸 자신만의 세계이다. 호손이 주홍글자를 가슴에 갖다 대는 것은 헤스터처럼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스러운 충동을 아름답게 그린다는 점에서 동일시된다. 헤스터는 수궁하고 싶지 않은 판결에

³ 「세관」은 애초에 단편 『주홍글자』를 포함한 작품집의 서문으로 쓰여졌으나 『주홍글자』가 길어지면서 호손의 친구이자 편집자인 제임스 필즈(James T. Fields)의 권유에 따라 「세관」과 『주홍글자』만 따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런 이유로 「세관」이 『주홍글자』의 서문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서 이후 판본에서는 「세관」을 빼고 『주홍글자』가 따로 출판되었고 「세관」은 평론가들과 독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The Scarlet Letter* 8 각주)

의해 강제로 글자를 달지만 호손은 자신의 내적 필요에 의해 글자를 단다(Baym 266).

호손이 예술가로서 한층 성장하는 계기는 감독관 퓨를 정신적인 조상으로 삼아 자신을 비난하는 조상들의 유령을 대체하는 것이다(Baym 268). 그는 감독관 퓨의 지시대로 조상들이 싫어할 글쓰기를 시작한다. 호손은 자신이 글을 쓰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잘것없고 한심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을 찬양하거나 인류에 봉사하는 길이 아닌 이야기 작가라는 직업은 청교도인 조상들에게 낱알이꾼보다 나은 게 없다. 호손은 자신의 조상들이 유서 깊은 집안의 자손인 그가 쓸모없는 작가나부랭이가 된 것을 하찮게 여기며 “그토록 훌륭한 이끼가 많이 낀 가게의 오래된 줄기의 가장 높은 가지에서 그와 같은 쓸모없는 인간이 나온 것”을 자신들의 죄에 대한 업보로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다(12).

신대륙에 정착한 그의 청교도 조상들은 퀘이커교도를 가혹하게 박해하고 마녀 재판을 주관하였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그들의 정착지로 이주해온 퀘이커교도들을 이단적 종파로 가혹하게 탄압하였다.⁴ 두 종파의 종교적 태도가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압을 한 이유는 그들이 평등을 강조하면서 위계에 따른 교회조직을 부정하는 과격한 평등주의를 표방하여 청교도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⁵

⁴청교도와 퀘이커교도 두 종파는 모두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여 생겨났으며 교리에도 공통점이 많다. The religious intensity and excitement in England prior to and during the Civil War gave rise to both Puritanism and Quakerism, and provided a background in which a rethinking of Christian doctrine was taking place and church governance and church-state relationships were being questioned (Dunn 582-83).

⁵ 폭스(George Fox)가 ‘진리의 벗’(Society of Friends)이라는 규율 바르고 착실한 퀘이커 조직을 만들기 이전에 이 종파에 나타났던 “체계적이지 못하고 열광적인 종말론적인”(unorganized, enthusiastic, and millennial) 태도 또한 청교도에게 불안감을 준 한 원인이었다(Pestana 328).

퀘이커교는 형식화된 종교의식을 반대하고 율법보다 ‘내면의 빛’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였다.⁶

호손은 그의 무자비한 조상 대신에 감독관 퓨를 정신적 조상으로 느끼며 그의 유고가 이끄는 대로 ‘노부인 프린’(Old Mistress Prynne)에 대한 작품을 쓴다.⁷ 예술을 인정하지 않고 퀘이커 여인을 잔혹하게 박해한 조상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교도에게 처벌받은 여인에 대한 작품을 쓰는 그의 행동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과 같다. 호손이 주홍글자를 가슴에 대어보는 것은 헤스터가 죄의 상징으로 주홍글자를 달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비난 받는 위치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나타낸다(Baym 268).

「세관」에서 그는 청교도인 그의 조상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거론한다.⁸ 반면에 주홍글자와 헤스터는 세심하게 다루어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준다. 글자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자선활동을 하는 헤스터의 모습 뒤에 숨겨진 고통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소설을 읽기도 전에 이미 독자들은 그녀를 완벽하게 이상화한다. 게다가 당시에 간음을 상징하는 글자는 ‘Ad’였는데 ‘A’로 표시한 이유도 거기에 다양한 의미가 적용될 수

⁶ 「유순한 소년」(“Gentle Boy”)에는 이브라힘(Ibrahim)의 어머니가 청교도 교회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며 엄숙한 예배의식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온다.

⁷ 독자에게 헤스터를 나이가 지긋하게 든 노부인으로 연상하게 하는 것은 간음을 한 부정한 젊은 여자의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⁸ 호손은 「세관」에서 퀘이커교도를 박해하고 마녀재판을 주관한 조상들을 신랄한 어조로 비난한다. 그는 「유순한 소년」에서도 퀘이커교도에 대한 박해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추방당하여 떠돌아다녀 고아가 된 무구한 소년 이브라힘을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청교도사회를 비판적으로 그려낸다. 그러면서도 호손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 자식을 떼어 놓은 이브라힘의 어머니를 “wander[ing] on a mistaken errand, neglectful of the holiest trust which can be committed to a woman” (*Twice Told Tales* 95)이라고 표현하는 등 퀘이커교도의 광신적인 모습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있도록 의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⁹ 호손이 주홍글자에서 느끼는 것은 그저 죄에 대해 느끼는 전율이 아니라 예술가가 영감을 자극하는 소재를 찾았을 때 느끼는 가공할 전율이다. 그것은 영감으로서의 예술, 초월적 상징으로서의 예술, 어떤 틀이나 언어의 구조물로서의 예술을 상징한다. 또한 그 글자에는 사회에서의 예술에 대한 통념, 즉 예술가는 낙인찍힌 자라는 것, 그리고 예술에서 종교적 내용만이 중요하며 예술가의 세속적인 상상을 표현할 경우 사회에 대한 저항이 되어 권위적 힘의 체제를 받아야 한다는 청교도적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Baym 269).

호손은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한 도덕적 가치와 깊은 교훈을 가진 소설을 쓰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Mosses from an Old Manse* 5). 베임은 『주홍글자』를 자서전을 쓴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완성해낸 예술품으로 보고 있다. 「세관」에서 퀘이커 여인을 가혹하게 탄압했던 청교도 조상에 대한 죄의식과 수치심을 토로한 작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교도사회에서 주홍글자를 달고 억압당하는 여인에 대한 작품을 써서 청교도 조상들을 비판한다(269).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예술 작품을 쓰는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냉혹한 청교주의와 그에서 비롯된 가혹한 만행을 비판하면서 주홍글자를 부정적인 권위에 저항하는 힘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다. 헤스터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청교도사회에 저항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띤다. 화자는 처음부터 헤스터나 주홍글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와 결말은 호손이 끝까지 청교주의를 비판하고 헤스터의 개혁과 변화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호손이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청교도 조상들이

⁹ Adultery를 상징하는 Ad 대신에 A를 쓰는 것은 글자가 상징하는 의미를 모호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소설에서 A는 차츰 Angel, Able, Admirable, Apostle 등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 간다. 그 외에도 A는 America, Art, Adam, Affection, Arthur, Allegory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저지른 잔혹한 만행에 수치심과 책임감을 느껴 그것을 비판하려는 것이 진정한 작품의 의도인지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있다.

스토우크나 베임 이외에도 많은 평론가들이 『주홍글자』를 호손의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한 순수한 예술작품으로 평가한다. 호손은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소설을 예술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주홍글자』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미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던 의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Arac 248). 그의 소설은 당대 사람들에게 현실정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술작품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런 평가는 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조나선 아락(Jonathan Arac)은 예술작품을 현실정치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비평적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모든 것은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해리엇 스토(Harriet B. Stowe)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Uncle Tom's Cabin)은 ‘예술’이라기보다 노예제에 대한 독자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선전’(propaganda)으로 여겨지다가 근래에 들어 ‘예술’로 재평가 되고 있다. 『주홍글자』 역시 “태도를 바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정치선전으로 볼 수 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주홍글자』에는 노예제 폐지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아락은 스토가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호손은 글자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그 글자의 의미가 차츰 다르게 인식되는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예제를 당장 폐지하려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때가 되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리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것이다(Arac 251, 262).

『주홍글자』는 호손이 관직생활을 하면서 글쓰기에서 멀어졌다가 「세관」에서 토로한 현실정치에서 겪은 좌절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쓴 소설로 17세기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대적 배경이 17세기라고 해서 작품에 그 시대의 모습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호손의

세관에서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640년대의 허구와 1850년대의 역사의 관계를 읽어내야” 한다(Arac 251). 「세관」과 『주홍글자』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소설 읽기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세관의 작가는 주홍글자를 손에 넣게 되면서 소설을 쓰게 되는데 「세관」의 작가와 『주홍글자』의 인물들은 서로 동일시된다. 호손과 헤스터 둘 다 청교도사회의 권력에 의해 비난 받는다는 점에서, 호손과 덤즈데일은 자신의 공적인 신분에 걸맞지 않는 열정적인 내면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호손이 세관 관리들의 성격을 분석하였듯이 칠링워스는 덤즈데일의 내면을 분석한다. 「세관」의 화자와 『주홍글자』의 주요 인물들이 동일시되면서 소설은 “1850년 작가가 처해있던 상황의 알레고리”로 읽힌다(Arac 252).

예술을 실용적인 업무와 분리시킴으로써 예술가를 현실에서 떼어놓은 호손의 의도는 그의 관심사가 서로 대립하고 있던 두 정당의 정치적 의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내보이는 것이었다. 「세관」에서 그는 『주홍글자』를 혁명에 의해 목이 잘려 정치적 생명이 끝난 감독관에 의해 쓰인 것으로 서술하여 자신을 면직시킨 업관제를 프랑스혁명의 공포에 견주는 과장을 한다. 결국 혁명이란 정실인사의 주체를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이며, 세관의 관직이 본질적으로 “인류의 공통적 노력을 같이 하지 않는”(does not share in the united effort of mankind 31)다는 점에서 자신의 면직여부에 상관없이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공직이란 권력에 의해 사유화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정치조직은 결국 관직이라는 이권을 쟁기는 부패한 집단에 불과하다. 정치가 단지 관직을 차지하거나 관직임명권의 거래에 불과한 현실에서 분별 있고 열의를 가진 지성이 정치에 간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세관」의 공직에 대한 묘사에는 문학은 정치와 관련이 없다는 호손의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들 중 내 글을 한 쪽이라도 읽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설령 글을 다 읽었다 해도 내게 관심을 더 갖지 않았을 것이다.

돈벌이가 안 되는 내 글을 나처럼 당대에 세관 직원이었던 번즈나 초서가 썼다고 해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None of them, I presume, had ever read a page of my inditing, or would have cared a fig the more for me, if they had read them all; nor would it have mended the matter, in the least, had those same unprofitable pages been written with a pen like that of Burns or of Chaucer, each of whom was a Custom-House officer in his day, as well as I. (23)

문학과 정치를 별개로 여기는 태도는 그가 정치에 가장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을 때도 그대로 유지된다. 호손은 대통령에 출마한 피어슨의 전기를 쓰게 된 이유를 자신이 정치에는 문외한이지만 피어슨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그의 인품을 평가하고 동기를 판단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⁰ 당시에 휘그당의 대통령 후보도 인물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했는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후보의 인간적 자질 외에 언급될 이슈가 없었다. 1852년은 미국 정치사의 전환기로 휘그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에 별반 차이가 없었던 때였다.¹¹ 당시의 화두였던 노예제에 대하여 두 당은 “거의 한 당으로 합병된” 것처럼 두 당 사이에 크고 근본적인 원칙상의 이견 없이 “신성한 연방의 유지”라는 공동의 대의를 추구하고 있었다(*The Life of*

¹⁰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author of this memoir—being *so little of a politician* that he *scarcely feels entitled to call himself a member of any party*—would not voluntarily have undertaken the work here offered to the public... If this little biography have any value, it is probably of another kind—as the narrative of one who knew the individual of whom he treats, at a period of life when *character* could be read with undoubting accuracy, and who, consequently, in judging of *the motives* of his subsequent conduct, has an advantage over much more competent observers, whose knowledge of the man may have commenced at a later date” (*The Life of Franklin Pierce* preface 인용자 강조).

¹¹ 휘그당과 민주당의 대다수는 공화당으로 합당되고 나머지 민주당은 소수당으로 전략하면서 공화당의 시대가 열린다.

Franklin Pierce 137). 호손은 노예제도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제도의 폐지를 연방을 위협하는 문제로 보고 노예제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노예제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하여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없어질 노예제를 폐지론자들이 원칙만을 내세워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던 호손은 노예폐지론자들을 비판하면서 ‘도망노예 조례’(Fugitive Slave Act)를 지지하던 피어스를 변호한다.¹² 노예제가 때가 되면 저절로 없어질 거라는 그의 생각은 덤즈데일이 죄를 고백하고 죽은 후에 칠링워스도 바로 죽어버리는 대목을 연상시킨다. 이런 그의 입장은 『주홍글자』의 결말에서 사회와 화해를 한 헤스터가 다른 불행한 여인들과 상담 하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조언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여자들이 헤스터의 오두막에 와서 그들이 왜 그렇게 불행한지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헤스터는 그들을 위로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말해주었다. 때가 무르익어 하늘이 정한 시간이 되어 좋은 세상이 오면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그때가 되면 남녀의 관계가 서로의 행복에 바탕을 둔 완전한 관계가 가능해진다고.

Women, more especially... came to Hester's cottage, demanding why they were so wretched, and what the remedy! Hester comforted and counseled them, as best she might. She assured them, too, of her firm belief, that, at some brighter period, when the world should have grown ripe for it, in Heaven's own time, a new truth would be revealed, in order to establish the whole relation between man and woman and on a sure ground of mutual happiness. (165-66)

¹² 노예제에 대한 호손의 입장은 피어슨의 전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Slavery is one of those evils which divine Providence does not leave to be remedied by human contrivances, but which, in its own good time, by some means impossible to be anticipated, but of the simplest and easiest operation, when all its uses shall have been fulfilled, it causes to vanish like a dream” (*The Life of Franklin Pierce* 113 인용자 강조).

아래는 『주홍글자』의 해석에 나타나는 ‘불확실성’(indeterminacy)의 원인을 호손이 글을 쓰던 때의 미국사회의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찾으며 그것이 글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호손이 피어스의 전기를 집필하고 세관에서 근무하던 때부터 『주홍글자』를 집필하는 기간을 전후하여 민주당원으로 관직을 맡은 점에 주목하면서 그는 『주홍글자』와 『피어스의 전기』의 관계나 공통적인 기반을 밝혀내고자 한다. 두 글을 비교하면 전기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호손의 정치적 태도와 입장이 소설에서는 애매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호손의 애매하고 불명확한 태도에 당시의 불안정하고 타협적인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호손이 17세기의 뉴잉글랜드에 지대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평론가들은 『주홍글자』에는 작가가 살던 19세기 미국의 관심과 작가의 성향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한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청교도적 과거는 작품의 이면에 놓인 핵심논제를 감추는 모종의 위장이라는 것이다. 래리 레놀즈(Larry J. Reynolds)는 1848년에서 49년까지 유럽에서 혁명의 기운이 진동하던 시기에 쓰였고, 또한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실패라는 반동적 사회적 맥락을 텍스트의 전경으로 하는 『주홍글자』를 “보수적이고 반혁명적인” 텍스트로 보고 있다(“The Scarlet Letter” 58). 유럽혁명의 초기에 왕정 폐지와 공화정 수립에 많은 미국인들이 열광하였으나 혁명에 수반된 폭력성과 그에 따르는 무질서를 목격하게 되면서 그들은 혁명의 기운이 미국에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혁명과 과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에서 휘그당의 집권이 유럽혁명과 동일시되고 논공행상을 위한 민주당 세력의 관직박탈이 프랑스 혁명의 참수형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호손은 선거에 승리한 휘그당이 단지 해를 가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잔인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자신도 그 잔인함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한다. 그가 「세관」에서 면직된 자신을 ‘목

잘린 감독관'으로 묘사하고 『주홍글자』에서 '단두대'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은 당대의 이런 혁명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Reynolds, L.J. 50).

모든 문제를 의논해서 처리하는 회중교회주의에서 시작된 미국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이는 다수결은 소수의 의사가 무시되고 군중심리에 지배될 위험성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수의 폭정에 대한 불안감은 미국의 민주체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내 친척, 몰리뇌 소령」(“My Kinsman, Major Molineux”)의 마지막 장면에도 잘 나타나 있다.¹³ 로빈(Robin)은 그가 찾던 몰리뇌 소령이 독립혁명 전야에 포악해진 군중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악몽처럼 경험한다. 권력을 잃은 소령은 온몸에 타르를 칠하고 그 위에 깃털을 씌우는 사형(lynching)을 당한다. 소령이 고통 속에서도 위엄을 잃지 않는 인물로 그려지면서 소설은 군중심리에 의한 횡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토크빌(Tocqueville)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다수에 의한 전제의 폐해가 유럽의 어떤 제도보다 심각하며 어떤 전제군주도 미국에서 다수에 의해 결정된 것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¹⁴ 『주홍글자』에는

¹³ 「내 친척, 몰리뇌 소령」의 끝부분은 다음과 같다: “On they went, like *fiends* that throng in mockery around some dead potentate, mighty no more, but *majestic* still in his agony. On they went, in counterfeited pomp, in senseless uproar, in frenzied merriment, trampling all on an old man's heart. On swept the tumult, and left a silent street behind” (*The Snow Image* 230 인용자 강조).

¹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횡포에 대한 토크빌의 우려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When one happens to examine how thought is exercised in the United States, one sees very clearly *how far the power of the majority exceeds all the powers known to us in Europe.*

Thought is an invisible power which cannot be bound and which makes fun of tyrannies. In our day, the most absolute sovereigns in Europe cannot prevent certain thoughts hostile to their authority from circulating secretly in their states or even in the heart of their courts. The same is not true of America; as long as the majority cannot make up its mind, speech is allowed; as soon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규범을 강요하는 청교도사회에서 고통 받는 개인의 모습을 통하여 ‘다수에 의한 폭정’(mobocracy)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 있고, 한편으로는 헤스터의 과격한 사상의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혁명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다.

레놀즈는 소설의 전반부에서 죄인인 헤스터가 오히려 아름답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억압적인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그녀의 입장이 공감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그녀의 사회에 대한 각성이 비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헤스터의 혁명적인 사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58). 작품에서 화자는 헤스터와 딘즈데일이 사회를 비판하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때는 공감적으로 그들을 옹호하는 반면에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에 부정적이거나 질서를 위협하는 저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예를 들면 권력자들이 꺾을 뼈앗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헤스터는 항의하기 위해 지사의 집에 찾아간다. 헤스터가 사회의 지배적인 권위에 저항하고는 있지만 어머니가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자는 헤스터의 편에 서서 그녀와 아이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헤스터가 개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서 내면적으로 일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질서를 부정하게 되자 화자는 그녀가 겪는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강조하면서 진보적인 사상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색번 버코비치(Sacvan Bercovitch)도 『주홍글자』에 당대 사회에 대한 호손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레놀즈와 마찬가지로

as it has pronounced its irrevocable decision, speech is silenced. Friends along with enemies seem to hitch themselves to its wagon. The reason for that is simple: *no monarch is absolute that he can gather all the forces of society into his own hands and overcome resistance as can majority endowed with the right of enacting laws and executing them*” (Tocqueville 297 인용자 강조).

소설에 두 역사적 시간의 틀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Hawthorne's a-Morality” 3). 1642년에서 49년까지의 시간은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고 1848년에서 52년까지는 「세관」을 쓴 작가의 전기적 시간이다. 뉴잉글랜드의 청교도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의 시간적 배경을 영국에서 크롬웰(Cromwell)이 이끈 실패한 청교도 혁명의 시기와 일치시킨 것도 교묘한 대비효과를 얻는다. 호손은 혁명적인 각성을 이룬 “헤스터를 영국 청교도 혁명의 크롬웰과 같은 혁명가의 미국판으로 보도록 한다.”¹⁵ 작가의 전기적 시간은 유럽에서 시민혁명으로 갈등이 폭발했던 시기이면서 또한 미국에서는 노예제 폐지문제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시기이다. 헤스터가 겪는 급진적인 사고변화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혁명적인 변화의 재현으로 그려진다.

바야흐로 구속에서 풀려난 인간의 지성이 과거 수백 년 동안 변한 것보다 더 활발하고 폭넓게 변한 시기였다. 무기를 든 사람들이 귀족과 왕들을 몰아냈다. 이들보다 더 대담한 사람들은 이전의 신념과 연관되어 있는 과거의 편견을 모두 뒤집어엎고 새롭게 하였다. 물론 그런 변화는 그것이 적합한 이론영역에서 일어났으며 현실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다. 헤스터 프린은 이런 사상을 받아들였다. 헤스터가 갖게 된 사색의 자유는 당시에 대서양의 다른 쪽에서는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선조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것을 주홍글자로 낙인찍힌 죄보다 더 치명적인 죄라고 여겼을 것이다.

It was an age in which the human intellect, newly emancipated, had taken a more active and a wider range than for many centuries before. Men of the sword had overthrown nobles and kings. Men bolder than these had overthrown and rearranged—not actually, but within the sphere of theory, which was their most real

¹⁵ 원문은 다음과 같다: “Hawthorne invites us to see Hester as an American version of such British revolutionaries as Oliver Cromwell” (Person 107 각주).

abode—the whole system of ancient prejudice, wherewith was linked much of ancient principle. Hester Prynne imbibed this spirit. She assumed a freedom of speculation, then common enough on the other side of the Atlantic, but which our forefathers, had they known it, would have held to be a deadlier crime than that stigmatized by the scarlet letter. (107)

화자는 이런 변화를 “악마같이 위험한, 환영 같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108). 그는 헤스터의 혁명적 각성을 비판하고 위험성을 경고함으로써 유럽의 혁명과 그것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다.

버코비치는 점차 사회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혁명적인 사고를 하게 된 헤스터가 결말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자신이 지향하던 바를 포기하고 사회와 타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헤스터의 급진적 혁명성에 대해 “주홍글자가 아직도 제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109)고 비판적인 어조로 언급된 것을 단초로 이러한 해석을 끌어낸다. 결말에서 헤스터가 어느 날 유럽에서 돌아와 자발적으로 주홍글자를 가슴에 달고 상담가로 지내는 결말을 주홍글자가 제 직분을 수행하여 헤스터가 비판하던 사회와 화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하는 사회를 떠나려고 했던 헤스터가 다시 돌아와 사회와 타협하게 되는 원인은 작품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다. 버코비치는 이 갑작스런 타협으로 작품이 급하게 결말에 이르게 되는 이유를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호손의 “회피”(evasion)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결말에서 호손의 “중도적 전략”(a centrist strategy)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감성소설과 고딕소설이 인기를 얻고 있던 당시에 『주홍글자』에서 감성적인 주제와 고딕적인 기법들을 활용하는 ‘중도적 전략’으로 호손은 갈등의 가능성을 회피하면서 대변혁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헤스터가 상담가로서 불행을 느끼며 찾아온 여성들에게 때가 무르익으면 혁명적인 변화가 저절로 찾아온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점진적인 개선을 빌미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Hawthorne's a-

Morality” 8).

호손은 휘그당이 집권하고 노예폐지론이 확산되어 가던 남북전쟁 전의 사회적 분위기를 유럽의 다양한 혁명적 사건과 같은 흐름이라고 여긴다. 민주당원이었던 그는 1848년 이후의 유럽과 미국의 혁명적 사상에 공감할 수 없었고 그의 이런 관점은 2세기 전 청교도사회에서 헤스터의 모습을 혁명적 사상과 결부시키고 그 사상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표현된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 호손이 가졌던 유보적이고 회피하는 태도가 『주홍글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결말부분의 헤스터가 사회와 화해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도 호손의 의도라고 여겨진다. 텍스트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간극을 텍스트와 역사, 그리고 독자의 교호작용을 통한 해석에 맡겨 독자를 “공모”(complicity)에 가담시킨다는 것이다.¹⁶ 이런 과정을 통하여 “헤스터가 사회를 뒤집어엎고 싶게 할 만큼 근본적인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시각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비치게 된다.¹⁷

17세기 청교도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주홍글자』의 사회를 「세관」의 컨텍스트와 직접 연결시켜 이해하게 되면서 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인물들의 사회에 대한 태도는 호손이 당대 사회에 가졌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홍글자』가 출간된 1850년은 ‘도망노예조례’가 포함된 ‘타협 결의’(Compromise Resolutions)가 통과된 해이다. 또한 1852년에는 그의 친구인 피어스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호손은 정치에 복귀한다. 노예폐지를 둘러싸고

¹⁶ 헤스터가 사회와 화해하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소설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What I would suggest is *the ideological power of gaps and silences*. In general, I refer to the special genius of liberal symbology in staging interpretation as *a means of coopting dissent*” (“Hawthorne’s a-Morality” 12 인용자 강조).

¹⁷ 원문은 다음과 같다: “[She] signals her recognition that what had seemed a basic problem— basic enough to have made her want to overturn society— is really a question of point of view” (“Hawthorne’s a-Morality” 11).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호손은 노예제도 폐지가 가져올 분열과 혼란을 염려하여 제도를 옹호하는 피어스의 입장을 지지한다. 작품에서 헤스터가 청교도사회의 규범을 어기고 사회에서 배척당할 때 화자는 억압적인 사회를 비판하며 그녀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헤스터가 사색을 통하여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지배적인 가치와 질서를 내면적으로 거부하면서 화자는 그녀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리며 사회의 통합과 존속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사회에서 고립되어 지내며 사회의 모순에 대하여 혁명적인 깨달음을 얻은 그녀는 사회를 등지고 떠나려고 마음먹지만 결말에서 자신을 억압했던 사회로 돌아와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보수적인 결말의 원인은 호손이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의 문학적 풍토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개혁문학과 어둡고 전복적인 개혁문학으로 양분되어 있던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 말부터 등장한 감성소설과 182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가정소설은 가정의 가치, 아이의 순수함, 애국심, 종교적 경건함, 긍정적인 역사관을 확인하고 옹호하였다. 반면에 미국적 고딕 주제를 다루는 선정적인 소설들은 개혁을 빌미로 인간의 타락과 범죄, 어두운 심리 등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극단적 묘사를 통하여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도덕성과 사회개혁에 회의를 표출하였다. 이러한 대조적인 문학적 풍토는 호손의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꼬마 애니의 산책」, 「유순한 소년」 등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반면 「젊은 굳맨 브라운」, 「목사의 검은 베일」 등은 어둡고 전복적인 특성을 보인다. 『주홍글자』에는 위선적인 목사, 타락한 여인, 사생아, 가족의 복수 등 어둡고 전복적인 소설에서 단골로 쓰이는 소재가 등장한다. 그러나 호손은 인간과 사회의 어둡고 양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청교도 과거를 배경으로 삼아 이러한 양면성을 내면화시키고 심리적인 갈등을 재현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도덕적으로 애매한 태도와 결론을 통하여 그는

보수적 개혁문학에서 보이던 것과 같은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보수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ynolds, D.S. 114, 125).

『주홍글자』는 17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사회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작품이 발표된 1850년대 남북전쟁 이전 미국의 불안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격심한 변화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을 겪던 시기에 호손이 느꼈던 유럽 혁명에 대한 두려움은 혁명사상이 가져오는 헤스터의 불행을 통해 표현된다. 헤스터의 각성을 통하여 개인을 억압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모순된 사회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은 동시에 헤스터의 타협을 통하여 사회의 존속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위한 개인의 인내와 타협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사회적 의제에 대한 혁명적 사고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호손의 태도가 소설의 애매한 결말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높은 곳의 뜻으로 사회가 내내 지켜지기”를 바라던 그의 염원과 일맥상통한다(Mosses from an Old Manse 26).

『주홍글자』의 배경이 되는 뉴잉글랜드는 영국 국교회의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상세계를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들이 신봉하던 청교주의는 유럽에서 종교개혁에 앞장선 칼뱅(Calvin)의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칼뱅주의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실제 생활에 적용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¹⁸

- (1)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신과의 계약(covenant), 그리고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계약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
- (2) 정치에는 교회출석, 오락, 의복, 일상사, 직업, 물가 등 온갖 분야가 포함되며 다른 종교를 믿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 (3) 정치와 종교는 하나이며 불가분이다.(장왕록 11)

¹⁸ 칼뱅주의의 교의는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s*의 두문자인 TULIP으로 요약되기로 한다.

청교도들은 식민지를 개척하는 새로운 삶에서 성경을 모든 영역의 지침으로 삼았으며 모든 인간을 원죄에 의한 타락 상태에 있다고 보는 교리는 신의 사랑과 자비 대신에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무와 율법만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종교적 탄압에서 벗어나 영국 국교회로부터 독립된 이상사회를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엄격한 율법만이 삶의 규범으로 적용되는 신권정치(theocracy) 사회는 아주 사소한 잘못도 엄중히 처벌하는 억압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처벌이 가해졌다. 『주홍글자』의 첫 장의 제목은 ‘감옥 문’으로 독자들은 이곳을 통해 청교도사회를 들여다보게 된다.

목조 감옥은 풍상을 겪어 앞으로 튀어나온 우중충한 정면이 더욱 음산하게 보였다. 참나무 문에 육중한 철제장치에 녹이 슬어 신세계의 그 어느 것보다도 고색창연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 그러하듯, 이 감옥 역시 새 것이었던 적은 없었던 듯했다.

[The] wooden jail was already marked with weather-stains and other indications of age, which gave a yet darker aspect to its beetle-browed and gloomy front. The rust on the ponderous iron-work of its oaken door looked more antique than anything else in the new world. Like all that pertains to crime, it seemed never to have known a youthful ere. (36)

건물 앞에 모여 있던 “수염이 텃수룩하고 우중충한 회색 옷을 입고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쓴 사람들”은 「세관」에서 감독관이 기억하는 그의 선조와 똑같은 외양으로 묘사되고 있다(36).¹⁹ 웨이커교도 여인에게 매질을 가하게 한 “잔인한 박해자”(11)였던 선조와 동일시되는 그들이 “미덕과 행복이 넘치는 유토피아”(36)를 세우려고 했던 개척지에서 맨 먼저 한 일이 새로운

¹⁹ 두 부분에서 청교도들을 묘사하는데 똑같은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this grave, bearded, sable cloaked and steeple-crowned progenitor” (11)

땅의 일부를 감옥과 공동묘지의 부지로 할당했다는 언급에서 그려지는 청교도사회는 어둡고 폐쇄적이다. 음울하게 묘사된 묘지와 감옥은 새로운 약속의 땅인 뉴잉글랜드가 시작부터 그들이 등지고 온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비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엄격한 청교도사회에 반기를 들었다가 감옥에 갇혔던 앤 허친슨(Ann Hutchinson)과 감옥 문 앞에 피어있는 향기롭고 연약한 장미 덩굴과의 연관성이 암시되면서 청교도사회는 더욱 억압적으로 보인다.²⁰ 음울한 감옥 앞 광장에 모여들어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청교도들의 엄숙한 표정과 그들 중 몇몇 여인들의 거칠고 대담한 내용의 수다는 규범과 질서에 대한 그들의 완고함을 드러내준다.

“도대체 옷의 가슴에든 이마의 살에든 표식이나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우리 모두를 수치스럽게 했으니 죽어 마땅해요. 그런 법이 없나요? 아니 틀림없이 성서와 법령에 나와 있죠. 이런 법을 적용하지 않은 판사님들은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타락해도 자업자득이죠.”라고 자칭 평결인인 여인들 중에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매정한 다른 여인이 소리쳤다.

“What do we talk of marks and brands, whether on the bodice of her gown, or the flesh of her forehead?” cried another female, the ugliest as well as the most pitiless of these self-constituted judges. “This woman has brought shame upon us all, and ought to die. Is there not law for it? Truly there is, both in the Scripture and the statute-book. Then let the magistrates, who have made it of no effect, thank themselves if their own wives and daughters go astray!” (39)

²⁰ 정부와 법을 상징하는 감옥과 묘지가 문명을 나타내는 반면 장미는 문명사회 이전의 야생적인 상태를 상징한다. 청교주의는 국가의 법을 따르고 자연의 법을 거부한다(Eisinger 325).

헤스터가 단죄 받는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군중의 경직되고 엄숙한 표정에서 그들이 그리던 유토피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어떤 경우든 간에 구경꾼들은 똑같이 엄숙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종교와 법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여겨 종교와 법이 철저히 혼합된 성격을 지닌, 공적 훈육의 행위라면 가벼운 것이거나 엄격한 것이거나 모두 존중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이었다. 우리 시대라면 조롱 섞인 비난과 비웃음을 받을 처벌도 그때에는 사형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엄격한 무게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In either case, there was very much the same solemnity of demeanor on the part of the spectators; as befitted a people amongst whom religion and law were almost identical, and in whose character both were so thoroughly interfused, that the mildest and the severest acts of public discipline were alike made venerable and awful. Meagre, indeed, and cold, was the sympathy that a transgressor might look for from such bystanders, at the scaffold. On the other hand, a penalty which, in our days, would infer a degree of mocking infamy and ridicule, might then be invested with almost as stern a dignity as the punishment of death itself. (37-38)

감옥 앞에 모여든 청교도들의 암울하고 경직된 태도는 무슨 엄청난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다는 예측을 하게 하지만 그 구경거리는 한낱 게으른 하인이나 부모 말을 거역하여 관에 넘겨진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채찍질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져 퀘이커교도나 다른 종교상의 이단자가 채찍질을 당하고 마을에서 추방당하거나 마녀가 교수형을 당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던 ‘장터’에 헤스터가 감옥 문을 나와 그 모습을 드러낸다. 감옥 문을 통해 헤스터를 끌고 나오는 교도관은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 곤봉을 든 엄숙한 모습으로 다시 한 번 청교도사회의 엄격함을 강조하는 효과를 낸다.

청교도사회와 그곳에서 단죄 받는 헤스터의 모습은 아주 대조적이다.

청교도사회와 사람들이 어둠의 이미지라면 감옥에서 끌려 나온 헤스터의 태도와 용모는 이와 대비되는 빛의 이미지이다. 감옥 문 앞에 이르러 그녀는 “타고난 위엄과 기질의 특성”을 드러내듯 교도관을 뿌리친다. 헤스터의 모습이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의지로 걸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화자는 그녀가 청교도 규범에 순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품에 안긴 3개월 된 아기와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자의 치욕 때문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도도해 보이는 미소를 띤 채 거리낌 없는 시선으로” 모여 든 사람들을 둘러본다(40).

버코비치는 감옥 문을 나오는 이 장면에서 이미 헤스터가 사회의 규범을 거부하고 “독립적 사고를 하는 잘못”(misstep into independence)을 보일 때 비판적이 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고 지적한다(*The Office* 8). 헤스터의 도도한 표정과 교도관을 뿌리친 행동뿐만 아니라 징벌로 부과된 주홍글자를 화려하게 수놓아 장식한 것도 자신의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경꾼 중 한 여자는 그 글자를 보고 헤스터가 권력의 판결을 비웃는 것이라고 매몰찬 반응을 보인다. 그녀에게 별로 부과된 글자 A는 청교주의의 신성한 진리에 의한 제재였지만 헤스터가 가슴에 단 화려하게 장식된 주홍글자는 그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상상력에 의한 독창적인 자기표현이었다(*Brodhead, Hawthorne* 45).

헤스터의 외양 또한 청교도사회와 아주 대조적으로 그려진다. 키가 크고 아름다운 그녀의 검은 머리에는 햇빛을 받아 윤기가 흐르고 흰한 이마에 새까만 눈동자가 인상적인 얼굴은 곱고 혈색이 좋다. 그녀는 당시의 귀부인들의 특징이었던 “기품과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수치심과 불행 때문에 아름다움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후광”처럼 헤스터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더구나 별로 부과된 “가슴에 환상적으로 수놓아진 주홍글자”는 헤스터를 범속한 그곳의 청교도들과 다르게 보이게 만든다(40-41). 그러나 치욕을 당하면서도 이토록 아름답고 여성다웠던 헤스터의 면모는 그녀가 개혁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된다.

헤스터에 대하여 호감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화자의 태도는 아기를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성모 마리아”(Divine Maternity 42)를 연상하는 데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그녀가 끌려 나온 감옥이나 엄격하고 비정하게 보이는 청교도 구경꾼들의 모습과 헤스터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화자가 죄인인 헤스터를 옹호하고 감싸면서 그녀를 단죄하는 억압적이고 가혹한 청교도사회를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덤즈데일 목사는 “대낮에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여자에게 비밀을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여자의 본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다(48).²¹ 청교도사회가 여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을 단죄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 아니라는 견해는 다음과 같이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공정하고 현명하며,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헤스터 프린이 얼굴을 돌려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지는 여인의 마음을 심판하여 선악의 얽힘을 풀어헤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아마 이들보다 이런 능력이 더 부족한 현명하고 덕이 있는 사람들을 똑같은 수로 뽑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They were, doubtless, good men, just, and sage. But out of the whole human family, it would not have been easy to select the same number of wise and virtuous

²¹ 덤즈데일의 이런 생각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았던 17세기적 인식을 넘어서는 19세기적 인식이다. Hester is a thoroughgoing anomaly in the Puritan past. Her subjectivity is structured along a public/private division that the seventeenth-century Bostonians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or even imagining. But her example is contagious. It has infected her partner in sin, the Reverend Dimmesdale, who vainly tries to persuade his fellow clergyman John Wilson “that it were wronging the very nature of woman to force her to lay open her heart’s secrets in such broad day light.” Wilson, who has the disadvantage of not being familiar with the antebellum cult of true womanhood, simply doesn’t get it. (Gilmore, “Hidden in Plain Sight” 122)

persons, who should be less capable of sitting in judgment on an erring woman's heart, and disentangling its mesh of good and evil, than the sages of rigid aspect towards whom Hester Prynne now turned her face. (47)

청교도사회의 지도층은 헤스터에게 가슴속에 담고 있는 비밀을 말하게 하거나 간음의 상대를 밝혀낼 능력이 없다. 그들은 사회의 규범을 어긴 헤스터에게서 공범의 신원을 알아내는 것만을 중시하고 헤스터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편협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아기의 아버지를 밝히지 않는 헤스터는 강하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그려진다. 상대남자의 이름을 밝히게 되면 평생 가슴에 달도록 했던 주홍글자를 떼게 해줄 수도 있다는 윌슨 목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밝히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과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그의 지위와 명예를 보호하려고 한다. 남자의 이름을 대라고 끈질기게 종용 당하면서도 그녀는 “내 고통 외에 그의 고통까지도 참고 견디겠다”고 잘라 말한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는 되는 것도 하늘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49).

헤스터가 주홍글자를 달고 치욕을 당하는 것은 간음을 저지른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사악하고 음란한 죄인이라기보다 운명적인 사랑에 고통 받는 지순한 여인으로 그려진다. 헤스터가 어쩔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단죄 받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녀를 벌하는 청교도 공동체는 인간의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시하는 억압적인 사회가 된다. 그곳은 아주 사소한 잘못까지 죄로 취급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 놓고 모욕하는 한편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박해하는 등 편협하고 엄격한 규율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이다. 헤스터의 간음죄는 이 엄격한 사회의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면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한 엄중한 죄이다. 하지만 젊고 예쁜 여자가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외롭게 지내다가 큰 유혹을 받았을 것이라는 정황이 참작되어 주홍글자를 가슴에

달고 처형대(scaffold) 위에서 세 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치욕을 겪고 평생 그 치욕의 증표를 달고 다니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평생 치욕을 당하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사랑하는 남자가 살고 있는 고장에 머물려고 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일편단심과 강인한 면모는 다시 강조된다. 형기를 마친 헤스터는 자신을 치욕의 전형으로 여기는 그 고장을 떠나지 않는다. 그곳에서 거주해야만 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 다른 곳으로 가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터였다. 헤스터가 그 고장에서 머문 이유는 죄 지은 곳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숙명적인 인연으로 맺어진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다.

불행을 가져온 사건의 현장이자 지나온 길에 헤스터를 묶어 둔 것은 그녀의 또 다른 감정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히 그러했다. 헤스터는 그런 비밀스런 감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것은 마치 뱀처럼 마음의 구멍에서 기어 나와 그녀의 얼굴을 파랗게 질리게 하곤 했다. 그곳은 헤스터와 숙명적인 인연으로 맺어진 그 사람이 살고 있으며 거닐고 있는 고장인 것이다. 비록 지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인연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서야 할 최후의 심판대, 그 자리를 결혼의 제단으로 삼아 끝없는 하늘의 형벌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It might be, too,—doubtless it was so, although she hid the secret from herself, and grew pale whenever it struggled out of her heart, like a serpent from its hole,—it might be that another feeling kept her within the scene and pathway that had been so fatal. There dwelt, there trode the feet of one with whom she deemed herself connected in a union, that, unrecognized on earth, would bring them together before the bar of final judgment, and make that their marriage-altar, for a joint futurity of endless retribution. (56)

자신의 정체를 숨기겠다는 칠링워스의 계획에 그녀가 동의한 것도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목숨과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그녀가 “아직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는”(124) 사람은 파멸을 겪는다. 칠링워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목사의 질병 치료를 핑계 삼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덤즈데일의 상태에 간여하면서 잔혹한 복수를 감행한 것이다. 화자는 헤스터가 전남편의 정체를 목사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를 순수하게 목사의 안위를 걱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여 목사에게 대한 헤스터의 사랑이 순수하였으며 헤스터의 과오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한다. 헤스터는 자신의 고통이 너무 가혹해서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며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지내는 목사는 그녀가 당하는 운명에 비하면 훨씬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만일 덤즈데일이 칠링워스의 복수로 인해 더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헤스터는 어떤 불이익이나 고난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그의 정체를 밝혔을 것이다. 그녀는 목사의 고통을 목격한 후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목사에게 칠링워스의 정체를 알리고 용서를 구한다. 칠링워스가 헤스터의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목사의 표정은 분노로 험악하게 변한다.

헤스터는 그가 무섭게 노려볼까 봐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7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은 이 고독한 헤스터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지만 그녀는 깨끗하게 참고 견뎌내면서 한 번도 냉혹한 시선을 외면해 본 일이 없었다. 하느님도 역시 그녀에게 얼굴을 찌푸렸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이 창백하고 허약하고 죄로 인해 슬픔에 짓눌린 사나이가 짓는 무서운 얼굴만은 참을 수 없었고 견디며 살아갈 수도 없었던 것이다.

Hester would not set him free, lest he should look her sternly in the face. All the world had frowned on her,—for seven long years had it frowned upon this lonely woman,—and still she bore it all, nor ever once turned away her firm, sad eyes. Heaven, likewise, had frowned upon her, and she had not died. But the frown of

this pale, weak, sinful, and sorrow-stricken man was what Hester could not bear,
and live! (125)

이토록 간절하고 진실된 감정을 가진 헤스터를 부정한 여자의 상징으로 만들고 태어난 아이마저 악마의 자식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청교도의 규범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헤스터의 덤즈데일에 대한 사랑의 순수성은 그것을 간음이라는 죄로 간단하게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을 획일적이고 억압적으로 보이게 한다. 숲에서 덤즈데일을 만난 헤스터는 “우리가 한 행동은 그 나름대로 신성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느끼기도 했고 서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정당화시킨다(126). 서로 사랑한 두 사람은 진실된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규범에 의해 처벌받고 고통당하는 신세가 억울하고 자신들이 희생자라고 느끼는 것이다. 칠링워스는 이미 자신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솔직히 시인하는 헤스터와 결혼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꽃다운 그녀를 흉하고 나이든 자신과 결혼하여 불행하게 한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녀가 그를 배신하고 주홍글자를 달게 되었다고 인정한다.

헤스터는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감정을 감추고 부정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감정은 어떤 수모를 감내하더라도 지킬 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다. 덤즈데일을 위한 방법이라고 여기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헤스터의 과오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그의 마음의 병은 더욱 깊어지고 파멸의 지경에 이른다. 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나약해져 고통의 나락에서 신음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사랑 때문에 고통 받아온 희생자라는 이미지는 더욱 강해진다. 그들은 사회의 규범을 어긴 대가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사악한 적의 존재로 인해 끊임없이 시달리고 고통을 받는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되고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지만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무시무시한 복수의 집념에 사로잡힌 적의 존재는 그들의 고통을 더욱 참기 어려운 것으로 만든다.

사랑으로 인해 억압적인 사회 규범의 희생자가 된 헤스터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누구 하나 도와 줄 사람 없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필을 데리고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서 지내면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하여 샹바느질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녀의 가슴에 단 주홍글자가 보여준 것처럼 섬세하고도 풍부한 상상력과 바느질 솜씨 외에 사람들의 죄인에 대한 호기심 등 이런저런 이유로 헤스터는 충분한 일거리를 얻을 수 있었고 품삯도 후한 편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냉혹했다. 헤스터의 빼어난 바느질 솜씨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일거리를 다 맡기면서도 순결한 신부의 면사포만은 그녀에게 맡기지 않았다.

바느질은 헤스터에게 생계수단일 뿐 아니라 내면의 정열을 발산시켜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죄의 상징인 주홍글자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수놓은 것처럼 필의 의복은 최대한 화려한 옷감에 자신의 모든 상상력과 솜씨를 발휘하여 만들어 입힌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름다운 옷을 만들면서 느끼는 즐거움마저 죄악이라고 여겨 포기하고 착실하게 샹바느질을 하는 헤스터는 생계비와 아이의 옷을 꾸미는 비용을 제외한 돈으로 남을 돕는다. 그녀는 혼자의 힘으로 아이와 자신의 생계를 해결할 뿐 아니라 절제하는 생활태도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돕는 관용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헤스터가 빼어난 바느질 솜씨와 자선활동으로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녀의 위치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58).

그러나 헤스터가 사회와 교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그 사회의 일원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은 없었다.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말씨나 침묵은 헤스터가 다른 세계에 속한 추방된 사람이며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기관이나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노골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헤스터는 실제로는 사람들 바로 옆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도덕적 관심사에서 격리되어 있었다.

In all her intercourse with society, however, there was nothing that made her feel as if she belonged to it. Every gesture, every word, and even the silence of those with whom she came in contact, implied, and often expressed, that she was banished, and as much alone as if she inhabited another sphere, or communicated with the common nature by other organs and senses than the rest of human kind. She stood apart from moral interests, yet close beside them. (58-9)

헤스터는 사람들의 기피와 백안시의 대상이 되어 지내면서도 끝내 깨끗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인 듯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도움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녀를 모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헤스터의 마음을 괴롭혔으나 그녀는 끊임없이 악의를 보이는 이웃사람들에게 “순교자”(martyr 59)처럼 인내심을 발휘하며 굳건히 버텨낸다. 그녀는 고통과 고뇌 속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질병이 창궐하면 병에 걸린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등 마을 전체나 개인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선다. 그녀는 “마치 불행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자격을 주거나 하는 것처럼”(105) 불행한 사람들과 함께한다. 헤스터는 개인적인 편이나 이익에 상관없이 남들을 도와주며 사람들의 경계심이나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태도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침내 헤스터를 배척하던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면서 죄에 대해 잊어간다. 열정적인 기질을 절제하고 근검하여 남을 돕는 헤스터의 모습은 “자비의 수녀”(a Sister of Mercy 105)로 비유되면서 죄인으로서의 그녀의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진다.²²

²² The Sisters of Mercy는 1831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만들어진 카톨릭 여성수도회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헤스터에 대한 그들의 찌푸린 얼굴이 자비로운 표정으로 바뀌어갔다. 높은 지위 때문에 도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대개 그러하였다. 한편 일반인들은 헤스터 프린의 과오를 완전히 용서하고 주홍글자를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달고 살아 온 죄와 음울한 회개의 상징이 아닌 그녀가 쌓아온 선행의 상징으로 보게 된다.

Day by day, nevertheless, their sour and rigid wrinkles were relaxing into something which, in the due course of years, might grow to be an expression of almost benevolence. Thus it was with the men of rank, on whom their eminent position imposed the guardianship of the public morals. Individuals in private life, meanwhile, had quite forgiven Hester Prynne for her frailty; nay, more, they had begun to look upon the scarlet letter as the token, not of that one sin, for which she had borne so long and dreary a penance, but of her many good deeds since. (106)

헤스터의 절제된 행동과 헌신적인 태도는 주홍글자를 가리키며 그녀를 기피하고 경멸하던 사람들을 감화시킨다. 그들이 주홍글자의 원래의 의미를 잊고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헤스터의 처지는 치욕의 생활을 시작했던 무렵과는 많이 달라졌다”(105). 그녀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거리에서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려고 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이 감사의 표현을 할 겨를도 없이 도움의 손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곳을 종종히 벗어나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에게도 주홍글자를 가리키며 지나쳐 버린다. 헤스터는 자신의 평판이 바뀐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들의 공동체와 거리를 두고 지낸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겸손함이라고 여겨지면서 그녀에 대한 평판은 더 좋아진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헤스터의 본성이 유감없이 발휘되었고”(105) 주홍글자 때문에 배척당하던 그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들 옆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주홍글자는 헤스터의 사명감의 상징이었다”(106).

주홍글자의 소임을 통하여 그녀는 사회에서 완전하게 소외되는 신세를 면하지만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된다. 헤스터의 가슴에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는 붉은 낙인 같은 주홍글자는 밝고 기품 있던 마음을 “메마르고 강박하게” 변화시킨다. “열정적이고 감성적이던 헤스터가 사색적”(107)이 되어 내면의 변화를 거치면서 그녀는 주홍글자의 다른 의미를 체득해간다. 죄를 상징하던 주홍글자에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져가듯이,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단죄를 받게 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고 죄악시해 왔던 헤스터의 태도도 바뀌어간다. 화자가 헤스터를 ‘순교자’ 또는 “사회의 희생자”(106)라고 언급할 때 헤스터는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아마도 헤스터는 처음부터 자신과 딘즈데일의 관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헤스터가 처형대에 섰을 때 구경을 하던 한 여자가 화려하게 장식된 주홍글자를 보고 죄에 대한 판결을 비웃는 것으로 해석했던 것이 그저 인정머리 없는 청교도의 매몰찬 반응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주홍글자를 떼어도 사회의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헤스터는 자신이 달고 있는 주홍글자는 “떼어내도 좋을 때가 오면 저절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하게”(110) 될 거라는 말로 더 이상 권력자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이미 7년 전에 월슨 목사가 상대 남자의 이름을 밝히면 주홍글자를 떼게 해줄 수 있다고 설득할 때도 헤스터는 자신의 죄에 대한 권력의 판결을 수긍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그때 그녀는 “이 글자는 너무나도 깊이 각인되어 떼어낼 수가 없다”(49)고 말하며 상대 남자에 대해 밝히기를 끝내 거부했었다. 헤스터에게 주홍글자로 상징되는 딘즈데일과의 관계는 살아 있는 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이 지은 죄로 연결된 쇠사슬은 목사도 헤스터도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104-05). 그들을 연결하는 죄의 사슬은 다름 아닌 그들의 사랑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주홍글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듯이 그들 또한 그들의 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딤즈데일과의 인연을 제외한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홀로 사색하면서 헤스터는 사회의 모순을 깨닫게 되어 “세상의 법은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법이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에 알려지면 “주홍글자가 나타내는 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죄”로 여겨질 만큼 사회의 가치와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었다(107). 사회에서 멀어져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지닌 채 사색하던 헤스터는 예리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갖게 되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변화를 꿈꾸게 된다. 화자는 헤스터가 주홍글자의 각인 아래 마음속에 열정을 억누르고 사색적으로 변하면서 메마르게 변해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견뎌내면서 얼굴은 무표정해지고 아름다웠던 자태도 변화를 겪는다.

여성으로 지녀야 할 특징들이 그녀에게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것은 혹독하게 고통스런 경험을 겪고 난 여자의 성격이나 자태에 나타나는 운명이며 또한 준엄한 발전이기도 했다.

Some attribute had departed from her, the permanence of which had been essential to keep her a woman. Such is frequently the fate, and such the stern development, of the feminine character and person, when the woman has encountered, and lived through, an experience of peculiar severity. (107)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의지할 곳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썩을 키워내기에도 벅찬 헤스터가 다른 행동을 할 여지라고는 없었다. 그녀는 여성다운 행복의 본질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회체제의 모순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조직 전체를 부수고 새로이 건설해야 한다”(108)고 생각하지만 그런 인식이 세상을 바꿔놓지는 못한다. 새로운 깨달음은 갖은 어려움 속에서 썩을 키우던 헤스터의 삶을 더 견디기 어렵게 한다. 평범하지 않은 썩의 성격도 헤스터를 힘들고 지치게 하여 그녀는 아이가 태어난 것이 과연 잘된 일인지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여성의 처지에

대해 개혁적인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지만 헤스터의 절망적인 마음은 위안을 받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다. “여자가 사상만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는 없다”(108)는 화자의 말대로 헤스터가 느끼는 문제는 대서양 너머 유럽에서 보편적이던 사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헤스터가 주홍글자를 달고 처형대에 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처벌 장면에서 화자는 ‘처형대’와 함께 프랑스 혁명을 언급함으로써 헤스터와 프랑스혁명과의 모종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²³

2, 3세대 전부터 단순한 역사적이고 전설 같은 유물로 보이는 처형대는 사실 처형장치의 일부로 전에는 훌륭한 시민정신을 기르는 데 있어 프랑스 혁명 당시의 단두대 못지않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In fact, this scaffold constituted a portion of a penal machine, which now, for two or three generations past, has been merely historical and traditionary among us, but was held, in the old time, to be as effectual an agent, in the promotion of good citizenship, as ever was the guillotine among the terrorists of France. (42)²⁴

²³ 레놀즈는 소설에서 scaffold 장면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호손이 헤스터의 개혁적인 사상과 유럽혁명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Although *The Scarlet Letter* has often praised for its fidelity to New England history, the central setting of the novel, the scaffold, is, I believe, an historical inaccuracy intentionally used by Hawthorne to develop the theme of revolution... The common instruments of punishment in the Massachusetts Bay Colony were, as Hawthorne shows in “Endicott and the Red Cross,” the whipping post, the stocks and the pillory... Although Hawthorne in his romance identifies the scaffold as part of the pillory, his narrator and his characters refer to it by the former term alone some twenty-six times, calling it the scaffold of the pillory only four times and pillory only once” (Reynolds, L.J. 51 인용자 강조).

²⁴ 호손이 말하는 citizenship은 17세기 청교도사회에서는 아직 없었던 개념으로 19세기적 의식의 반영이다 (Thomas 182)

헤스터가 겪는 문제에 대해 화자는 “여성특유의 감성을 이성보다 우위에 두게 되면 문제는 깨끗이 사라지게 된다”(If her heart chance to come uppermost, they banish. 108)고 말하면서 그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호손이 헤스터의 깨달음을 통해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다. 이제까지 화자는 청교도사회를 개인의 본성을 억압하는 엄격하고 통제적인 사회로 묘사하고 헤스터와 딤즈데일은 비련의 연인으로 그리면서 경직된 사회의 희생양으로 보이도록 서술해왔다. 그러나 화자는 헤스터가 주홍글자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감성적인 여성적 특성을 잃은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성적인 사색을 통해 헤스터가 깨닫게 된 사회체제의 문제점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깨달음은 헤스터 본인의 삶을 더 불행하게 할 뿐이다. 조엘 피스터(Joel Pfister)는 헤스터의 변화를 통하여 호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성을 잃는 것은 인간성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호손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저항하면서 동시에 여성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130).

이렇게 헤스터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심장의 고동을 잃은 채 어두운 미로를 헤매고 있었다. 넘을 수 없는 벼랑에 몰려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깊은 골에 놀라 뒤로 물러서기도 하였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쓸쓸하고 황량하여 위안을 받을 만한 곳이 전혀 없었다. 차라리 필을 천국으로 보내버리고 자기도 정의의 여신이 정해주는 내세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으려 했다. 주홍글자는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Thus, Hester Prynne, whose heart had lost its regular and healthy throb, wandered without a clew in the dark labyrinth of mind; now turned aside by an insurmountable precipice; now starting back from a deep chasm. There was wild and ghastly scenery all around her, and a home and comfort nowhere. At times, a fearful doubt strove to possess her soul, whether it were not better to send Pearl at

once to heaven, and go herself to such futurity as Eternal Justice should provide.

The scarlet letter had not done its office. (108)

주홍글자는 지은 죄를 참회하면서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순응하라는 의미로 그녀에게 부과된 벌이었으나 그것은 맡은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헤스터는 사회와 거리를 두고 혼자 사색하게 되면서 더욱 더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유를 통하여 사회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을 깨닫게 되면서 그녀는 더욱 벗어나기 어려운 고뇌와 절망을 느낀다. 이렇게 절망적이던 그녀에게 처형대에서 괴로워하던 덤즈데일을 만나고 나서 목표가 생긴다. 자신보다 더 처참한 상태에 있는 목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내야 하는 것이다. 캐롤린 마이버(Carolin R. Maibor)는 『주홍글자』와 『블라이드데일 로맨스』(*The Blithedale Romance*)의 결말을 비교하여 제노비아(Zenobia)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유를 헤스터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며 사회의 개선을 위하여 기여하는 것과 같은 소명과 목표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Mitchell 42 재인용). 제노비아는 당당하고 지적이며 특히 여성의 권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그녀는 기부금을 모아 죄수들을 교화시키겠다는 홀링스워스(Hollingsworth)의 이상에 매력을 느끼고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홀링스워스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인물로 그가 제노비아에게 접근한 것은 그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제노비아는 홀링스워스의 사랑을 위하여 여성의 권리에 대해 진취적이던 태도를 버렸으나 그의 사랑을 잃게 되면서 인생을 포기한다. 반면에 황량하고 위로 받을 길 없는 세상에서 때로는 펄을 하늘로 보내고 자신도 자살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헤스터는 사랑을 위한 자신의 새로운 소임을 깨닫고 절망에서 벗어난다.

덤즈데일은 칠링워스가 헤스터의 남편이었고 복수를 하기 위해 그의 곁에 머물렀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나서 앞으로도 그 적과 함께 생활해야

할 두려움 때문에 그곳을 떠나자는 헤스터에게 동의한다. “미래에는 많은 기회와 성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선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위선적인 생활을 진실한 생활로 바꿔요”(127)라고 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헤스터의 제의를 떨쳐버리기에 7년간 그를 짓눌러온 죄의 비밀은 너무나 가혹하게 그를 괴롭혀왔다. 게다가 그에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적의 정체가 밝혀진 상황에서 목사는 절망과 두려움에 시달려온 삶을 뒤로 하고 헤스터와 함께 새 출발을 하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기로 한다. 규범만이 중시되는 억압적인 청교도사회의 희생자인 두 사람에게 사회를 등지고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떠나기로 한 덤즈데일은 희망과 기쁨을 느끼면서도 불안하다. 본성이 용감하고 적극적인 헤스터는 오랜 세월 사회에서 고립되어 생활하면서 자유롭고 진취적인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엮여 있는 목사가 있는 곳에서 필을 제대로 키우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가 정해준 틀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살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비참한 몰골 앞에서 망설임 없이 대담한 결단을 내린다. 화자는 헤스터에게 “7년간의 그 치욕적인 고립생활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기간에 불과했다”고 단언한다(129). 그러나 덤즈데일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사회체제의 규범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그때도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본능의 이끌림에 의한 것이었을 뿐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사회 지도층인 목사로서 그는 더욱 그 사회체제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사람들의 존경심에 가득 찬 편견 때문에 더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긴 위선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처참할 정도로 엄격한 생활을 해온 것도 그를 더 도덕적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오랜 고뇌에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달아나는 길과 위선자로 남아 복수에 혈안이 되어있는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대로 버티는 길 중에서 달아나는 길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점점 더 고삐를 죄어오는 가혹한 운명 앞에서 헤스터의 설득을 거부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도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목사의 절망적인 마음에 헤스터의 격려와 부드러운 위로는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목사는 “이제 헤스터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다”고 느낀다(129).

결심을 하고 나자 그때까지 두 사람을 괴롭혀 온 절망감과 고통이 사라지고 자유로움과 기쁨이 찾아온다. 기쁨 속에서 헤스터는 과거를 모두 벗어 던져버리겠다는 행동처럼 주홍글자를 떼어버리고 모자로 감췄던 머리카락을 어깨 위에 풀어헤친다. 그러자 그녀에게서 사라졌던 여성다운 본질이 다시 나타난다. 젊음이 넘치는 아름다움이 되살아나고 희망과 행복감이 헤스터를 빛나게 한다. 두 사람은 그 동안 엄격한 사회체제에 의해 억눌려왔던 자연적인 본능과 감정을 인정하면서 해방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이 숲 속에서 느낀 이러한 행복감은 7년 전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느낀 감정과 다를 바 없이 비밀스런 것이며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죄 많은 것이다. 주홍글자를 떼어낸 것을 보고 펄이 헤스터의 가슴을 가리키며 사납고 심술궂게 구는 것은 그녀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느끼는 행복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홍글자를 떼어내고 과거를 던져버린 모습을 낯설게 여기고 허용하지 않는 펄 앞에서 그녀는 주홍글자를 다시 달게 된다.

딤즈테일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들에게 사악한 충동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게 된다.

행복의 꿈에 빠져들어 그는 전에 결코 해본 적 없는, 치명적인 죄로 알고 있는 일에 고의로 자신을 내주었다. 그리고 이 죄의 전염성 있는 독이 그의 도덕체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모든 신성한 감정을 마비시키고 나쁜 충동 전체를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남을 경멸하고 신랄하게 대하며 이유 없는 악의를 갖거나 악을 선망하고 선하고 신성한 모든 것을 조롱하려는 충동이 그를 두렵게 하면서도 유혹하기 위해 깨어났다.

Tempted by a dream of happiness, he had yielded himself, with deliberate choice, as he had never done before, to what he knew was deadly sin. And the infectious poison upon that sin had been thus rapidly diffused throughout his moral system. It had stupefied all blessed impulses, and awakened into vivid life the whole brotherhood of bad ones. Scorn, bitterness, unprovoked malignity, gratuitous desire of ill, ridicule of whatever was good and holy, all awoke, to tempt, even while they frighten him. (141-42)

내면에서 일어난 이러한 끔찍한 변화에 놀라 덤즈데일은 헤스터와 떠나기로 한 약속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는 죄 때문에 오랜 세월 겪어 온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고백하고 거짓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헤스터의 혁명적인 사고가 헤스터의 내면을 더욱 비참하게 했듯이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덤즈데일의 내면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이다. 그는 새로운 결심으로 지사의 취임을 축하하는 설교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쓰고 정신적인 힘으로 나약해진 육체를 지탱해간다. 설교를 마친 후 처형대에 올라가 헤스터와 펠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는 죄를 털어놓고 펠이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한다. 죄의 고백으로 덤즈데일의 갈등이 끝났을 뿐 아니라 펠은 적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목사가 헤스터와 같이 떠났더라면 주홍글자의 사명은 완전히 부정되고 칠링워스의 복수도 계속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떠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칠링워스도 그들과 같이 떠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헤스터와 덤즈데일이 고통을 겪는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이다. 그러나 칠링워스는 자신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아내의 부정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이다. 처형대에서 그를 알아보고 헤스터가 보인 반응은 단지 죽은 것으로 여겨온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놀라움만은 아니었다. 그를 본 헤스터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세계 끌어당겨서 아기가 아파 울지만 그것도 모를 만큼 당황한다. 구경꾼들 앞에서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길 만큼 그녀는 칠링워스와 둘이 대면하게 될 순간을 두려워한다. 낮 동안의 과도한 긴장과 흥분으로 인해 교도관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던 헤스터는 칠링워스가 나타나자 갑자기 긴장하여 숨을 죽이고 조용해져서 교도관을 놀라게 한다. 그녀는 남편인 칠링워스에게 간음이라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를 대면하기조차 두려워한다. 헤스터와 딤즈데일이 저지른 죄는 칠링워스에게 지독한 상처가 되고 배신감에 사로잡힌 그는 복수에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다. 칠링워스는 누가 보아도 두 연인의 잘못 때문에 복수의 화신으로 변하지만 소설에서는 그를 불쌍해하거나 공감을 보이는 대신 그를 악의 전형으로 그려내고 있다. 칠링워스의 정체를 알게 된 딤즈데일은 그를 강하게 비난한다.

헤스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들은 아니요. 타락한 목사보다 더 사악한 자가 있어요! 그 노인의 복수는 내 죄보다 더 흉악해요. 그는 인간의 신성한 마음을 냉혹하게 침해했어요. 헤스터, 당신과 나는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We are not, Hester, the worst sinners in the world. There is one worse than even the polluted priest! That old man's revenge has been blacker than mine. He has violated, in cold blood, the sanctity of a human heart. Thou and I, Hester, never did so. (127)

1840년대에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라 법정에서 부정한 아내를 둔 남편이 아내의 연인을 죽였을 경우 불문법을 적용하여 무죄로 방면하였다(Ireland 32). 불문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특정한 구절을 차용하여 간음을 저지른 죄인을 “사탄의 자식”으로 간주했으며 아내를 범한 난봉꾼을 남편이 처단하는 것을 그가 신의 대리인으로 복수를 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호손은 이와는 정반대로 부정한 아내에게 배신당한 칠링워스를 오히려

“사탄이나 사탄의 밀사”(Satan himself, or Satan’s emissary 86)로 표현한다. 그는 「이선 브랜드」 (“Ethan Brand”)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서 자신의 강력한 요구에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지성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죄’로 규정하고 있다.²⁵ 칠링워스는 이선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성한 내면을 침범함으로써 자신은 치명적인 죄에 빠지게 되어 사탄과 같은 위치로 전락하는 것이다.

브룩 토마스(Brook Thomas)는 호손이 아내의 부정을 지켜 본 칠링워스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고 악의 전형으로 그리는 이유를 그의 사회에 대한 태도에서 찾고 있다. 호손은 사회규범을 중시하여 죄의 처벌은 공적인 체제의 ‘성문법’(the written law)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원한이나 복수에 의한 죄의 사적 제재는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복수의 악순환을 가져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폐해를 낳는다. 따라서 복수의 악순환으로 인한 사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간음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처벌할 책임은 공적인 권력이 맡게 된다(Thomas 190). 비록 칠링워스는 그의 아내와 덤즈데일의 죄로 인해 크게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헤스터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주홍글자로 처벌 받은 것처럼 덤즈데일의 처벌도 공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는 부정한 아내의 상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어 개인적인 복수를 하겠다는 집념에 매달린다. 덤즈데일을 용서하고 이전의 학자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헤스터의 간청을 받아들여 잘못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지만 칠링워스는 이를 거부한다. 마침내 덤즈데일의 정체를 알아낸 그는 목사가 죄를 고백하려는 순간에도 자신의 복수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끝까지 사회체제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제재를 획책한 칠링워스를 호손은 악의 한 전형으로 그려내고 있다.

²⁵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sin of an intellect that triumphed over the sense of brotherhood with man and reverence for God, and sacrificed everything to its own mighty claims” (*The Snow-Image* 90).

「유순한 소년」에도 17세기 청교도사회에서 박해당하며 고통 받는 개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웨이커교도인 캐서린은 사회에서 추방되어 떠돌며 지낸다. 헤스터를 억압한 청교도사회는 경직되고 엄격한 사회로 그려지고 이브라힘을 박해하는 아이들은 펄을 놀리는 심술궂고 폭력적인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진다. 호손은 청교도사회의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식을 포기하고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캐서린을 비롯한 웨이커교도들을 ‘광신’(fanaticism)이라는 표현으로 비난한다. 그러나 사회와 갈등을 겪던 인물들은 사회와 화해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광신적인 캐서린은 결말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브라힘에게로 돌아온다. 캐서린도 헤스터처럼 떠났던 사회로 다시 돌아와 사회체제 안에 머물게 되는 결말에는 사회의 통합과 지속을 중시하는 호손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주홍글자』에서 갈등을 겪던 인물들이 사회와 화해하여 사회적 융합과 지속의 동인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사회의 관계에서 펄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 펄의 역할

헤스터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자는 헤스터의 죄에 대해 이 세상에서 가한 벌이다. 처형대에 선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알리는 주홍글자에 수치심을 느끼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아기를 바짝 끌어 당겨 안는다. 그러나 아기는 또 다른 죄의 표식이기 때문에 수치의 표식인 주홍글자를 가릴 수가 없다. 세상은 간음을 한 헤스터에게 주홍글자를 달게 하여 세상 밖으로 내쫓는다. 그러나 펄은 “어머니를 세상과 연결시키기 위해” 신이 준 선물이다. 아이는 “불가사의한 신의 섭리에 따라” 태어나 헤스터가 세상을 등지지 않고 그 안에 머물게 한다(61). 이런 펄은 자신의 출생만큼이나 미묘하고 복잡한 기질을 보이며 작품 내내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펄은 한 아이 안에 많은 다른 아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놀랍도록 무한히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겉보기에 이렇게 자주 변하는 것은 펄의 내면에 다양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이의 본성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깊이도 있었다. 그러나 헤스터의 두려움 때문에 생긴 착각일 수도 있지만 펄의 본성은 아이가 태어난 세상과 관계를 맺거나 적응하기에 적합하지 못했다. 펄은 세상의 규범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Pearl's aspect was imbued with a spell of infinite variety; in this one child there were many children...

This outward mutability indicated, and did not more than fairly express, the various properties of her inner life. Her nature appeared to possess depth, too, as well as a variety; but—or else Hester's fears deceived her—it lacked reference and adaptation to the world into which she was born. The child could not be made amenable to rules. (62)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펄의 기질 때문에 헤스터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른다. 이런 헤스터의 심정은 마치 “마법으로 요정을 불러냈으나 그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겨 이 새롭고 영리한 존재를 통제할 마법의 주문을 잃어버린 사람”에 비유된다(63). 그렇지 않아도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멸시에 찬 눈초리를 받으며 혼자 아기를 키우는 서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모든 것을 잃고 “그것을 되찾을 가망도 없는”(107) 헤스터에게 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얻은 유일한 보물”이다(61). 그런 펄에게 어둡고 거친 면이 있는 것이 자신의 죄의 업보는 아닐까 두려워하며 그녀는 회한에 젖는다. 펄은 엄마인 헤스터도 이해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서로 모순된 기질과 행동을 보인다.

이런 펄의 모습 때문에 작품에서 펄의 역할이나 의미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시도되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펄의 역할에 대한 해석과 설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일치된 견해를 찾기는 어렵다. 펄은 그 자체로 이질적인 기질과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때론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작품 자체가 많은 해석과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고 상반된 해석이 나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갈리츠는 지금까지 있었던 펄에 대한 연구경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온 원인 중 하나로 ‘개념의 역사’(the history of ideas)를 들고 있다.²⁶ 그녀는 “펄에 대한 해석은 시기마다 달라진

²⁶ 갈리츠는 그간의 펄의 평가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In the past hundred years she has been variously described as “most artificial and unchildlike,” and as possessing “the natural bloom... of childhood, as a creature “of moral indifference, as one not born into the moral order,” and as an illustration of “that law which visits the sins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For some critics she performs the function of “symbolized conscience,” but for others she is simply “a darksome fairy” or “the one touch of color in a somber picture.” To one writer she typifies “a disordered nature torn by a malignant

아이들에 대한 견해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을 보는 시각은 그들의 보편적 특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그 시각에 따라 아이인 펄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왔다. 한편 펄은 순수하면서도 사악한 존재로 설명되기도 하고 ‘실제 아이’의 특성이 반영된 모습으로 여겨지거나 상징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런 해석은 아이를 보는 당대의 시각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펄의 변덕스럽고 길들여지지 않은 실제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은 호손의 딸인 우나의 기질과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요정 같은 초자연적인 면은 살아있는 상징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690-91).²⁷

갈리츠는 펄이 일반적인 아이의 특성을 보이면서도 주홍글자를 달게 된 헤스터의 도덕적 타락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펄이 보이는 제멋대로이고 심술궂은 기질이나 번잡함, 특정 대상에 혐오감을 드러내는 모습 등은 아이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이런 성격이 펄에게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헤스터의 영향을 받고 그 특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펄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역시 사회에 철저하게 반항적인 헤스터의 근본적인 과오 때문이다. 당시에 유행하던 생리학적 심리학에 의하면 일반적인 부모의 도덕적 성향이나 태중에 우세했던 도덕적 태도 등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conflict between the forces of good and evil,” but to another she is an example of Rousseauian natural goodness. In the past five years Pearl has been found a symbol both of “unnatural isolation” from society and of the organicism of nature as opposed to the mechanism of society, a symbol of both the id and of “man’s hopeful future.” Several critics have called Pearl a child of nature outside the realm of grace, to another an example of prelapsarian innocence, and to a third “an object of natural beauty, a flower,” and like nature, amoral, “not good or bad, because… not responsible” (689).

²⁷ 갈리츠에 따르면 Van Dorens, Julian Hawthorne, Randall Stewart 등이 펄의 특성에 우나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Anthony Trollope는 펄을 단순한 상징으로 보고 있다.

부모의 도덕적 성향이 아이에게 유전된다는 생리학적인 유전 이론에 따르면 펄은 헤스터의 도덕적 특성을 물려받은 것이다. 헤스터는 펄의 특성을 불굴의 용기, 강렬한 의지, 강한 긍지 등으로 나열하는데(116) 이는 모두 헤스터 자신의 특성이기도 하다. 갈리츠는 『주홍글자』에는 세 가지 유형의 죄, 즉 드러난 헤스터의 간음죄, 비밀로 숨겨진 딤즈데일의 죄, 칠링워스의 용서받지 못할 죄 외에 펄을 통해 유전으로 물려받은 죄가 더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698). 이렇게 유전된 죄는 근본적인 죄는 아니기 때문에 펄은 기본적으로는 순수한 아이이다.

아이를 세상의 때가 묻기 이전의 순수하고 죄 없는 존재로 보는 ‘무구한 아이’(the sinless child)라는 개념은 이브라힘이나 애니(Annie) 처럼 호손의 이전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⁸ 그러나 그가 남긴 개인적 기록에는 이기적인 아이들의 모습이 자주 보이고 『주홍글자』에는 펄 이외에도 심술궂고 잔인하며 남을 증오하는 아이들이 등장한다. 펄에게는 무구한 아이라는 관념과 호손이 아이들을 키우며 직접 경험한 모습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호손이 아이는 본질적으로 무구하다는 당시의 개념을 반박하지 않고 펄의 부정적인 모습을 헤스터의 탓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아이가 부모의 도덕적 특성을 물려받게 된다는 생리학적 심리학 덕분이었다(Garlitz 696-98).

체스터 아이싱어(Chester E. Eisinger)는 펄의 성격이 어렵고 복잡한 이유를 17세기 청교주의에서 찾고 있다. 소설에서 내내 제멋대로이던 펄이 행복한 결혼과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결말이 정통적인 청교도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교도들은 ‘자연 상태의 자유’(natural liberty)와 ‘시민적 자유’(civic liberty)를 구분하였다(324). 그들은 자연 상태의 자유를 신의 권위와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사람을 방탕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 상태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고 시민적 자유만이 허용되었다. 그들은 “자연법을 부정하고 시민법을

²⁸ “Little Annie’s Ramble”

따르는 것이 안정된 체제내의 질서 있는 삶을 보장해준다”고 여겼다. 펠은 불륜으로 태어났으며 속박 받지 않고 자란다는 점에서 ‘자연의 아이’이다. 죄 많은 태생으로 인간사회보다 자연에 가깝던 펠은 덤즈데일이 회개하면서 인간사회의 구성원이 된다(Eisinger 325).

펠은 헤스터가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열정에 굴복하여 낳은 죄의 결과로 살아있는 죄의 상징이다. 청교도사회에서 배척당한 모녀는 청교도 규범의 일상적인 구속을 벗어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자유분방한 자연과의 연관성이 언급된다. 특히 펠은 자주 야생적인 꽃이나 새 등에 비유되면서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사람의 아이가 아닌 요정이나 악마로 묘사되기도 한다. 펠은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아이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영역에 속해 있다. 통제 받지 않고 자연 상태의 자유를 누리는 펠은 청교도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아이들 세계에서도 따돌림 받지만 자연은 펠을 받아들인다. 펠의 특성이나 태생 자체가 청교도사회보다는 자연에 가까워서 펠은 자신이 태어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자연 상태의 자유를 누리며 청교도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던 펠은 덤즈데일이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딸로 인정하면서 자연 상태를 벗어나 완전한 인간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때까지 신이 아니라 자연의 주관 아래 있던 펠은 덤즈데일의 회개로 신의 섭리와 인간사회의 규범을 따라 살게 된다. 펠에게서 자연 상태가 씻겨나가면서 인간사회에 적합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청교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Eisinger 323-25)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릴 아벨(Darrel Abel)은 펠을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Wordsworth)의 ‘루시 시’(Lucy poems)의 루시와 견줄 수 있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자연의 아이’로 해석한다(50). 여기에서 루시는 출생이나 성장과정에서 인간적인 요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상적으로 자라는 반면 펠은 태어나고 커가면서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상태로 자연에 맡겨져 있다. 루시는 인간이 길러낼 수

없는 완벽한 자연의 아이의 전형으로 제시된다. 루시와 달리 펄은 출생과 성장에서 인간적인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펄에게 영향을 주는 인간적 요소는 생물학적인 태생보다 도덕적인 면이 훨씬 강조된다.²⁹ “펄의 티 없는 생명은 알 수 없는 신의 섭리로 죄 많은 정열의 도가니에서 나온 아름답고 영원한 꽃”이라고 표현된다(61). 펄은 주변 어른들에게 도덕적인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희미해진 그들 내면에 남아있는 타고난 도덕심을 상기시켜 준다. 펄의 기분이나 행동이 변덕스럽고 자주 바뀌는 것은 헤스터나 댄즈데일의 도덕적인 상태가 달라질 때마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펄은 그들에게 자신의 도덕적 상태를 자각하게 하여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악한 충동이 스며들면 히빈스가 이를 감지하고 다가와 악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펄은 그들이 나쁜 생각을 버리고 도덕심을 회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³⁰ 펄이 반복적으로 헤스터의 주홍글자와 목사의 가슴에 손을 얹는 습관에 주목하면서 이를 언급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펄은 그들에게 본능적인 욕망을 버리고 도덕적으로 살도록 본능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펄은 ‘자연의 아이’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아이’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이가 도덕성을 실현하는 것은 부모가 끼치는 영향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은 무척 중요하다. 아이의 교육을

²⁹ 부모의 생물학적 특성보다 도덕적 특성이 아이에게 유전되어 세대간의 지속성이 유지된다는 생각은 칼뱅에게서 나왔다. 호손의 이런 견해는 그의 개인적 기록에 나타나 있다: “It is a marvel whence [the white pond-lily] derives its loveliness and perfume, sprouting as it does from the black mud over which the river sleeps, and from which, likewise, the yellow lily draws its unclean life and noisome perfume” (*The American Notebooks* 318).

³⁰ 호손의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도덕심을 상기시켜 준다는 생각은 “Little Annie’s Ramble”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As the pure breath of children revives the life of aged men, so is our moral nature revived by their free and simple thoughts” (*Twice Told Tales* 96).

위해서라도 부모는 잃어버린 도덕심을 다시 회복하여 아이가 도덕적 질서와 연결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Abel 54-56).

펠에게 자연은 루시에게 만큼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펠도 본질적으로 자연의 아이이다. 펠은 자연에 자주 비유되고 자연에 친화력을 보이며 교감을 나눈다. 호손은 사람의 본성과 물리적 자연에 서로 구별되는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을 포함하여 그것을 초월하는 통합된 하나의 질서가 있고 그것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에머슨을 비롯한 초월주의자들에게 자연적 삶과 인간적 삶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니었으며³¹ 그들과 가까이 지냈던 호손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³²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인간적 삶과 자연적 삶이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의 생각은 자연과 교감하는 펠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펠은 “인류의 첫 조상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곳에 남겨졌어도 천사들이 함께 놀아 줄”(61) 아이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자연적인 순수성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늑대도 펠에게 “다가와 옷 냄새를 맡으며 펠이 토닥거리도록 야수의 머리를 내밀었다”(131)는 이야기에서 자연의 야생동물이 인간의 아이 펠에게 공감하며 그들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준다.

워즈워스가 루시를 꽃에 비유한 것처럼 호손도 펠을 종종 꽃에 빗댄으로써 펠의 본질이 자연에 가깝다는 것을 보인다. 사람들에게

³¹ 다음 표현에는 에머슨의 이런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Philosophically considered, the universe is composed of Nature and the Soul. Strictly speaking, therefore, all that is separate from us, all which Philosophy distinguishes as the NOT ME, that is, both nature and art, all other men and my own body, must be ranked under this name” (Emerson 16).

³² Male Jr.와 Holmes는 호손의 낭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특징으로 호손의 ‘organic principle’ 또는 ‘organicism’을 언급한다. 다음 글에는 호손의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Our fire, red-gleaming among the trees, and we beside it, busied with culinary rites and spreading out our meal on a moss-grown log, all seemed in unison with the river gliding by, and the foliage rustling over us. And, what was strangest, neither did our mirth seem to disturb the propriety of the solemn woods” (*Mosses from Old Manse* 24).

배척당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펠은 엄마와 단 둘이 지내면서 둘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과 동시에 자연과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진다. 마을에서 떨어진 숲 근처에서 살게 되면서 그들은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펠은 자연과 더 쉽게 교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펠과 자연의 관련성이 강조되면서도 호손이 위즈워스와 다른 점은 루시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모습이지만 펠은 도덕 이전의 상태라는 것이다. 인간의 특징적인 면인 도덕적인 진실성에서 아이는 도덕 이전의 단계에 있거나 발달시켜 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 호손의 생각이었다.³³ 도덕 이전의 상태이거나 도덕심이 발달하고 있는 아이를 ‘인간화’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불륜으로 태어나서 죄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를 둔 펠이 인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덤즈데일의 죄의 고백은 도덕적 요소와의 연결이 불확실한 펠이 인간화되는 계기가 된다. 덤즈데일이 죄를 고백하고 펠을 딸로 인정하게 되면서 인간화된 펠은 자연과 인간적 도덕이 조화를 이룬 상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Abel 60-62).

맥나마라는 헤스터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기로 했던 덤즈데일이 갑자기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 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홍글자』를 헤스터의 이야기가 아닌 덤즈데일의 이야기로 보면서 소설의 후반부에서 덤즈데일이 유럽으로 달아나 일시적인 자유를 누리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된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펠은 단순히 헤스터와 목사를 연결해주는 수동적인 역할이나 그들의 죄를 상징하는 차원을 넘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자는 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헤스터나 덤즈데일처럼 중심적인 인물로 그려낸다. 소설에서

³³ 호손은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도덕심이 인간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했으나 칼뱅처럼 아이가 악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보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숲 속 장면이나 세 번의 처형대 장면에 모두 펄을 등장시키고 초자연적인 직관력을 부여하여 아이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헤스터가 주홍글자를 떼어버린 의미를 파악하여 다시 달게 하거나 댄즈데일에게 죄를 암시하며 고백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역할은 결말에서 댄즈데일이 죄를 고백하게 되는 동기가 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위선자로 헤스터의 같이 도망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여 다시 죄를 지으려고 했던 댄즈데일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군중 앞에서 죄를 고백할 용기를 가지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목사가 겪은 정신적인 변화의 원인은 펄이다. 펄은 목사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데 소설에서 설명되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펄은 아기 때부터 엄마의 주홍글자에 대하여 기이한 호기심을 보이고, 목사의 가슴에 손을 얹는 습관에 대하여 아무 이유 없는 관심을 보인다. 게다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사실을 연결 지어 궁금해 하면서 암시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불가사의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댄즈데일도 그저 신도들에게 사랑 받는 헌신적인 평범한 목사만은 아니다. 그는 섬세한 이해력과 공감능력, 예리한 지성, 정신적 명민성 등으로 존경 받는 신 같은 목사이다. 게다가 그는 신자들과 소통하는 면에서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맥나마라는 『주홍글자』를 “놀라운 아이의 놀라운 행동으로 구원 받게 되는 놀라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라고 말한다(538).

헤스터와 댄즈데일이 그들을 억압하는 사회를 떠나기로 결정한 후 펄은 주홍글자를 떼어낸 헤스터에게 심술을 부려 주홍글자를 다시 달게 한다. 목사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펄의 태도에 당황하고 고뇌를 겪다가 죄를 고백하고 떳떳해지라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행동에 변화를 보인다. 펄은 헤스터에게는 자연 상태의 평범한 아이로 그 행동이 있는 그대로 이해되지만 목사에게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아이로 이해된다. 헤스터가 주홍글자를 다시 달자 펄은 다가가 그녀를 안아준다. 목사에게 심술궂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던 펠은 처형대에서 죄를 고백한 목사에게 헤스터에게 했던 대로 다가가 그를 안는다. 펠의 행동의 의미를 목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숲 속에서 펠이 덤즈데일을 거부하던 순간부터 그는 혼란을 느껴 고뇌에 빠지게 된다. 목사는 기이하고 낯선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행해야 할 바를 깨닫고 그 고백의 순간을 향해서 나아간다. 숲에서 내려오는 길에 온갖 사악한 충동과 유혹을 거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는 펠의 이상한 행동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제까지의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게 된 그는 왕성한 식욕을 느껴 식사를 한다. 거짓된 마음으로 작성하던 취임 축하 연설 원고를 폐기한 덤즈데일은 진실된 마음으로 거침없이 원고를 다시 작성해낸다. 연설의 주제는 그들을 미국의 거친 땅에 정착시킨 신의 섭리와 영광에 관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난다. 같이 달아남으로써 죄에 굴복하여 거짓 자유를 얻으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한 덤즈데일을 보자 헤스터는 그가 자신의 세계에서 멀어졌음을 느낀다. 반면에 펠은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목사에게 숲에서는 거부했던 입맞춤을 기꺼이 해주고 아버지와 딸인 그들 사이에 있었던 거리감이 사라진다. 펠은 소설에서 내내 반복해서 덤즈데일에게 죄에서 벗어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여 그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누텔먼은 펠이 헤스터를 사회화시키는 주홍글자의 기능을 완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교도사회는 주홍글자를 부과함으로써 헤스터를 별하여 사회의 규범을 따르게 하려고 하지만 글자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면서 그것은 징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헤스터는 주홍글자를 달고 사회에서 고립되어 지내면서 오히려 사회의 가치체계를 부정하고 저항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호손은 처벌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주홍글자가 실패한 역할을 펠에게 맡긴다. 18세기 후반에 들어 범법자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에 논란이 일게 되면서 죄수들을 격리하여 교화시키는 감옥형이 일반화되었다(Foucault 11-12). 공개적인 처벌의 목적은 권위를

과시하며 죄인을 복종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헤스터에 대한 공개적인 처벌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녀의 태도와 처벌의 수단인 주홍글자가 본래 가졌던 의미를 잃게 되면서 징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헤스터를 교화시킨 것은 감옥형도 공개형도 아닌 펄과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이다. 양육과정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이를 통해서 사회에 드러나고 이는 주홍글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친다. 펄을 키우면서 헤스터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이는 그녀를 교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Nudelman 194-95).

월터 허버트(T. Walter Herbert Jr.)는 호손과 그의 딸 우나와 펄의 관계를 분석하여 호손이 우나의 가장 곤혹스럽던 모습을 펄에게 재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호손은 자신의 딸에게 여성다움을 기대했으나 우나에게는 거칠고 자신의 주장이 강한 남성적인 성격이 더 우세했다. 이런 우나의 특성은 호손 자신의 소심하고 남성답지 못한 면과 함께 끝까지 호손을 괴롭히고, 우나 스스로도 자신에게 요구되는 여성다움과 그와 다른 자신의 본성 사이에서 평생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펄의 모습에는 이런 우나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헤스터가 보이는 남성 같은 강인함과 덤즈데일의 여성 같은 유약함에도 호손의 성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깊숙이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된다. 신디 대니얼즈(Cindy L. Daniels)는 호손이 펄의 여성답지 못한 면을 억누르려고 했다는 허버트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펄의 모습을 이상적인 여성의 미래상이라고 주장한다. 펄은 “인간적인 기쁨과 슬픔 속에서 성장하여 세상과 다투지 않고 세상 속에서 여인이 되는”(162) 변화를 겪으면서 청교도의 규범에 구애 받지 않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낡은 청교도교리를 뒤집고 그들의 처벌을 구원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펄에 대한 연구에서 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해석은 무척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 애매하고 수수께끼

같은 펠의 모습이나 행동은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경향에 비추어 볼 때 펠의 행동을 작품 전체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일관된 흐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은, 작품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서는 사회와 갈등을 겪던 개인이 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화해하는 내용에서 어린아이인 펠이 맡고 있는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어서 펠의 역할과 호손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쓴 작품에 나타난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관련되어 있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주홍글자』에서 펠은 사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단절된 채 생활하던 인물들이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헤스터는 간음죄로 엄격한 청교도사회의 규범을 어겨 주홍글자를 가슴에 달아야 하는 징벌로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간다. 이 사건으로 사회와 갈등을 겪게 되는 사람은 단지 헤스터뿐만이 아니다. 같이 죄를 범한 덤즈데일은 자신의 죄를 밝히지 못한 채 비밀로 남기면서 내면적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된 삶을 산다. 헤스터의 배신에 분노한 칠링워스는 복수를 위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숨김으로써 막 당도한 사회와의 관계를 포기한다. 더구나 죄의 결과로 태어난 펠은 애초에 사회로부터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사회와 불화를 겪으며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호손은 결말에서 고통을 받던 이들이 사회와 화해하는 설정으로 개인과 사회의 갈등 속에서 단절이 아닌 화해를 지향한다. 그는 아이인 펠에게 개인과 사회의 관계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사회의 통합과 지속을 위해서 아이들이 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는 일생을 통하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을 썼으며,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불어넣고자 노력하였다.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주변에 머물던 헤스터, 덤즈데일, 칠링워스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마침내 화해하고 아이인 펠이 그 매개 역할을 맡고 있는 소설에는 호손의 사회에

대한 태도와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펠은 “출생 자체로 큰 규칙이 깨진” 헤스터의 “죄의 상징이자 결과”이다(61). 죄의 결과로 태어난 펠은 처음부터 평범한 다른 아이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달랐다. 당시의 가정교육은 매우 엄격하여 아이의 악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하여 심하게 꾸짖거나 성서의 권위에 기대어 매질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아이들의 체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것은 18세기에 로크(Locke)의 교육방식이 들어오고 난 후의 일이다(Brodhead, “Sparing the Rod” 67). 그러나 마을과 멀리 떨어진 외딴 오두막에서 혼자 펠을 키우던 헤스터는 아이를 엄하게 다루지 못한다. 자신이 사회의 규범을 어긴 대가로 겪고 있는 불행이 펠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펠이 일찍부터 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가르치고 싶었으나 그것은 헤스터에게 벅찬 일이었다. 부드럽게 달래보아도 소용없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해 보아도 펠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저 펠이 내키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었다. 펠은 그녀에게 죄의 대가로 주어진 시련으로 오롯이 감내해야 할 업보였다.

죄의 결과로 태어난 펠은 죄의 상징 그 자체로 헤스터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상기시킨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의 미소를 보고 거기에 답해 미소를 짓는 보통의 아기들과 달리 펠이 처음으로 눈여겨본 것은 엄마의 가슴에 달려 있는 주홍글자였다. 마치 모든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작은 손으로 화려한 주홍글자를 잡으려는 펠이 헤스터에게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에도 불구하고 펠의 주홍글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된다. 뛰어다닐 만큼 자란 후 어느 날 펠은 들꽃을 따다가 헤스터의 가슴을 향해 던지며 주홍글자에 명증시킬 때마다 좋아 날뛰었다. 손으로 주홍글자를 가리려던 그녀는 창백하고 슬픈 표정으로 체념한 듯이 펠의 장난을 견뎌낸다. 주홍글자에 맞은 흔적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어 헤스터의 가슴을 뒤덮는다. 펠은 주홍글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궁금해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댄즈데일의 가슴에 손을 얹는 습관을 언급한다. 둘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암시하는 것 같은 날카로운 필의 지적은 헤스터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필이 지닌 이런 특성은 죄를 짓지 않은 아이들만이 지닌 ‘진실을 파악하는 직관’(instinct for truth)이다. 이런 견해는 당시의 ‘죄 없는 순수한 아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19세기에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진실을 파악하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예지력을 타고난다고 여겨졌다. 인간의 예지력은 이주해야 할 때를 아는 철새의 본능과 같은 동물적 본능에 인간의 불멸의 영혼이 결합된 것으로 동물적 본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 삶에서 정신적 직관의 힘을 소홀히 여기고 일시적이고 덧없는 현실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충동과 욕구에 굴복하면서 직관의 빛이 희미해지고 예지력도 사라진다 (Cheever and Cheever 77-83).³⁴ 필이 덤즈데일과 자신과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것은 직관과 예지력을 잃기 이전의 어린아이의 순수함에서 나오는 능력이다. 필이 덤즈데일의 가슴에 손을 얹는 습관을 언급하거나 칠링워스를 ‘악마’(Black Man)로 인식하는 능력은 19세기에 아이의 순수함의 특징으로 여겼던 반쯤은 예언자적인 분별력이다. 이런 특성은 필에게 사명처럼 부여되어 있다.

헤스터는 신이 필에게 이런 특별한 기질을 부여함으로써 정의와 천벌에

³⁴ 예지력이 성서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 나쁘게 발현되면 요술이나 우상숭배와 같이 악마성을 띠게 된다. 칠링워스나 에선 브랜드는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신의 영역을 범하는 사탄이 된다. Just so, these spiritual intuitions and impulses of our being go off in every absurd direction, when not kept under guidance of God's Word; the force is expended in every way except the right, and perhaps in tricks of jugglery and superstition. There are none so superstitious, none so credulous, none so completely the sport of nonsense and of *Satan*, as those who have cast off the Word of God; none so hampered and tricked by lies from the invisible world, as those who disbelieve the realities of that world, as revealed in the Scriptures. (Cheever and Cheever 84)

대한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그와는 반대로 이 계획 속에 자비와 은혜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이 그저 보통의 아이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희망을 지닌 신의 사자라면 엄마 마음속에 차갑게 자리잡아 무덤같이 만드는 슬픔을 잊게 해 주려는 사명을 가진 게 아닐까? 또한 한때 그렇게도 격렬했던, 아직도 죽거나 잠들지 않고 무덤 같은 가슴에 갇혀 있는 정열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의 사명이 아닐까?

Hester had often fancied that Providence had a design of justice and retribution, in endowing the child with this marked propensity; but never, until now, had she bethought herself to ask, whether, linked with that design, there might not likewise be a purpose of mercy and beneficence. If little Pearl were entertained with faith and trust, as a spirit messenger no less than an earthly child, might it not be her errand to soothe away the sorrow that lay cold in her mother's heart, and converted it into a tomb?—and help her to overcome the passion, once so wild, and even yet neither dead nor asleep, but only imprisoned within the same tomb-like heart? (117)

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결과로 여겨져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따돌림을 받았다. 세월이 흐르고 필이 자라서 애들과 어울려 놀 나이가 되어서도 마을의 또래들과 친구가 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죄를 상징하는 필을 악마가 점지했다고 믿었고 세례를 받은 아이들과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여겼다.

다른 아이들의 떠들고 노는 소리에 섞인 맑고 새소리 같은 필의 목소리를 듣고,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또래들의 재잘거림 속에서 귀여운 자신의 아이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다면 헤스터 프린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을까?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And then what a happiness would it have been, could Hester Prynne have heard clear, bird-like voice mingling with the uproar of other childish voices, and have

distinguished and unraveled her own darling's tones, amid all the entangled outcry of a group of sportive children! But this could never be. (64)

펠은 뛰어난 직관력으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받아들여 주홍글자와 관련된 자신의 고독한 숙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헤스터가 감옥에서 나온 후 집 밖으로 나갈 때에는 언제나 펠을 데리고 다녔다. 펠은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뚫어지게 바라보기는 하였으나 그들 사이에 끼려고 하지는 않는다. 누가 말을 걸어도 모른 척하고 아이들이 주변으로 몰려오면 성질을 부리고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한다. 주홍글자를 단 헤스터와 눈에 띄는 용모를 한 펠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 개구쟁이 아이들이 그들에게 짓궂게 굴고 노골적으로 큰소리로 놀리며 경멸하는 것에 대한 앙갚음이었다.

마을과 멀리 떨어진 외딴 오두막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밖에 나가서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펠에게 헤스터는 전 세계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딘즈데일은 헤스터와의 간음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비밀로 숨겨 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밝힐 수가 없다. 펠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로 배척당하면서 오로지 어머니를 통해서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펠은 딘즈데일과의 자신의 관련성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사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기를 촉구하는 듯한 언행을 보인다.

1. 펠과 헤스터

헤스터는 간음을 상징하는 주홍글자를 낙인처럼 달고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수모를 겪는다(55). 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헤스터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저 사적인 영역에서의 과오로

남모르게 참회하는 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지내던 헤스터가 아기를 가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간음의 증거가 되어 그녀의 죄가 드러나고 펄은 헤스터의 “죄에 대한 처벌” 그 자체이다(76). 펄은 “다른 형태의 주홍글자, 즉 살아 있는 주홍글자”인 것이다(69). 펄은 헤스터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죄의 결과를 대면하고 회한을 느끼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딤즈데일과 헤스터가 함께 저지른 죄의 결과인 펄은 사실상 “그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101)이며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죄의 낙인과 같은 주홍글자 그 자체이다.

주홍글자는 “헤스터가 떠안고 부담해야 하는 결코 떼버릴 수 없는” 낙인이다(55). 그녀는 펄과 둘이서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살면서 주홍글자라는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된다.

그것들을 거치면서 헤스터의 인격은 사라지고 단지 여성의 나약함과 사악한 열정을 강렬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설교자나 도덕주의자들이 가리키는 일반적인 상징이 되리라. 그리하여 어리고 순수한 사람들이 가슴에서 불타고 있는 주홍글자를 쳐다보면서, 고결한 부모의 자식이며 이제는 여성이 될 아기의 어머니며 한때는 순결했던 헤스터를 죄를 나타내는 형상, 죄 그 자체로 보게 될 것이다.

Throughout them all, giving up her individuality, she would become the general symbol at which the preacher and moralist might point, and in which they might vivify and embody their images of woman's frailty and sinful passion. Thus the young and pure would be taught to look at her, with the scarlet letter flaming on her breast,—at her the child of honorable parents,—at her the mother of a babe, that would hereafter be a woman,—at her, who had once been innocent,—as the figure, the body, the reality of sin. (55)

그녀는 헤스터라는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나타내는

주홍글자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면서 그 글자로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주홍글자는 마음에 빗장을 거는 “불운하고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녀와 마찬가지로 죄 많은 사람의 공감만이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61). 주홍글자 때문에 헤스터는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한편 그 글자로 사회에서 통용되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주홍글자가 헤스터와 사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셈이다.

식민지 시대에는 자녀양육을 부모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관련된 문제라고 여겼다(Pfister 4). 당시에는 헤스터와 펄의 안위보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자들이 심사숙고하고 정부에서 개입하는 등 삶의 모든 문제가 청교도 규범의 영향과 통제 아래 있었다(68). 권력자들은 아이의 불멸의 영혼을 죄인인 헤스터에게 맡긴 것에 대해 “권위와 영향력을 지닌 자신들의 양심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논의를 하게 된다. 아이에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죄의 상징을 단 어미보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더 현명하고 훌륭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된 헤스터는 양육권을 빼앗으려는 그들을 설득하여 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지사를 방문한다. “타락한 어미의 손”에 펄을 맡겨두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손에서 “평범한 옷차림에 엄격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이에게 낫다는 지사의 말에 헤스터는 주홍글자가 준 교훈으로 펄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75). 그러나 그들이 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유는 그 글자가 상징하는 오점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초적인 교리문답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심술궂은 펄의 태도는 타락한 헤스터에게서 기독교인으로 꼭 필요한 기본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는 결정이 내려지려고 한다.

헤스터는 이런 상황에 강하게 반발한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 얻은 펄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세상에 양보할 수 없는 아이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76). 죄를 벌하기 위해 보내진 펄은 헤스터에게 죄의 상징인 아픔이자 고통이면서 동시에 축복이다. 펄은 살아있는 주홍글자로서 지은 죄를 상기하고 참회하게 할 뿐 아니라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책임감은 헤스터를 다른 죄에 빠지지 않게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자신의 전부인 펄을 빼앗길 곤경에 처하자 헤스터는 딘즈데일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모성의 권리’를 강조한다. 헤스터의 간청에 목사는 열성적으로 모녀를 옹호한다.

신이 그녀에게 아이를 주셨고 아이의 본성과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능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아이의 성격과 그에 맞는 보살피는 방법은 아주 특이해서 다른 사람들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이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 대단한 신성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God gave her the child, and gave her, too, an instinctive knowledge of its nature and requirements—both seemingly so peculiar,—which no other mortal being can possess. And, moreover, is there not a quality of awful sacredness in the relation between this mother and this child? (77)

헤스터의 모성의 권리 주장과 펄의 특이한 기질을 헤스터보다 더 잘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딘즈데일의 설득에는 아이의 양육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19세기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17세기에는 ‘아내의 지위에 관한 교의’(the doctrine of coverture)에 의해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었다. 남편과 아내의 양육권 분쟁에서 아내에서 양육권이 최초로 인정된 것은 1774년이였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일방적인 지배를 인정하던 결혼관은 미국이 독립하여 민주 공화국이 되면서 부부가 보완적인 의무로 결합되는 상호 계약적인 성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새로운 공화국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의 기회는 열리지 않지만 대신에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여 공화국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여성의

중요한 역할로 여기게 된다(Thomas 193-94). 헤스터의 모성의 권리 주장에는 아내가 남편에 맞서서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일이 잦아진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자녀의 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시되기 시작된 터전에서 덤즈데일의 설득에 지나쳐 버릴 수 없는 뜻이 있다고 인정한 권력자들은 딸을 다른 사람의 보호에 맡겨 “하늘과 땅의 진리를 배우게”(75) 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타락한 헤스터는 딸의 양육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죄 많은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하늘의 진리를 배우는 것에 우선하게 된 것이다.

헤스터는 딸을 양육하면서 자선을 베푸는 등 성실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본성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행동을 자연스런 본능에 따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녀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거나 사회의 가치체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선을 베풀면서도 사람들과 고립되어 지낸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이었던 그녀는 오랜 세월 외롭게 지내면서 오히려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위험한 사상을 발전시킨다. “주홍글자는 다른 여자들이 감히 받을 들여 놓지 못하는 영역에 드나들 수 있는 통행증이었다.” 오랜 세월 주홍글자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되어 지내면서 그녀는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이로부터 “목사의 칼라, 법복, 처형대, 교수대, 난롯가, 교회 등에 대해서 인디언만큼이나 존경심 없이 비판하게 된다”(128).

우선 사회조직 전체를 부수고 새로 건설해야 한다. 둘째로는 남성의 본성, 아니 본성으로 굳어버린 오랜 습성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여성이 정당하고 적절한 지위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른 방해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여성 스스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런 개혁이 효과를 갖기 어렵다.

As a first step, the whole system of society is to be torn down, and built up anew. Then, the very nature of the opposite sex, or its long hereditary habit, which has

become like nature, is to be essentially modified, before woman can be allowed to assume what seems a fair and suitable position. Finally all other difficulties being obviated, woman cannot take advantage of these preliminary reforms, until she herself shall have undergone a still mightier change[.] (108)

사회체제가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남녀 관계를 왜곡시키는 모순을 깨닫게 된 헤스터는 억압적인 청교도 규범에 맞서 앤 허친슨처럼 개혁운동의 전면에서 나설 가능성도 있었다. 사람들 마음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마다 접근하는 심술궂은 히빈스가 헤스터를 숲 속 모임에 데려 가려고 마수를 뺏칠 때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헤스터를 구해준 것은 펠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펠을 돌보아야 하는 헤스터가 펠을 두고 히빈스를 따라 모임에 갈 수는 없다. 헤스터는 “아이를 빼앗겼다면 당신을 따라 숲 속으로 들어가 마왕님 장부에 피로 서명이라도 했을 텐데요.”라는 말로 히빈스의 초대를 거절한다(79). 타락한 헤스터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할 것을 우려하며 그들의 관계를 끊으려 했던 권력자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펠을 제대로 키우기 위하여 체제에 맞춰가면서 헤스터는 개혁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는 불온한 인물이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극히 대담한 사상의 소유자일수록 사회의 규칙을 순순히 따른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사상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헤스터 프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만일 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사정은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많은 사색을 통하여 얻게 된 예리한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앤 허친슨 같은 사람과 손을 잡고 새로운 종파의 창시자가 되어 예언자로 이름을 남겼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랬다면 그녀는 청교도사회를 뿌리째 뽑아 버리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과격한 사상은 아이의 교육에서 그 배출구를 찾고 있었다.

It is remarkable, that persons who speculate the most boldly often conform with the most perfect quietude to the external regulations of society. The thought suffices them, without investing itself in the flesh and blood of action. So it seemed to be with Hester. Yet, had little Pearl never come to her from the spiritual world, it might have been far otherwise. Then, she might have come down to us in history, hand in hand with Ann Hutchinson, as the foundress of a religious sect. She might, in one of her phrases, have been a prophetess. She might, and not improbably would, have suffered death from the stern tribunals of the period, for attempting to undermine the foundations of the Puritan establishment. But, in the education of her child, the mother's enthusiasm of thought had something to wreak itself upon.

(108)

사회와 유리되어 외롭게 고통을 겪던 헤스터와 딘즈데일은 숲 속에서 다시 만나 사회의 억압과 위선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행복한 인간적인 모습을 회복한다. 그들은 사랑을 확인하고 고통을 주는 사회를 벗어나 다른 세계로 떠날 계획을 세운다. 과거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은 헤스터는 주홍글자를 떼어버리면서 “치욕과 고뇌의 짐이 사라지고” 억압된 감정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낀다. 가리고 있던 모자를 벗자 까맣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억눌러온 “여자로서의 개성과 젊음이 넘치는 아름다움 모두가 과거로부터 살아나, 처녀시절의 희망과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행복과 함께” 그녀를 찾아온다(130).

그러나 숲에서의 이 만남은 애초에 그들이 나눈 사랑처럼 공동체의 가치체계에 반하는 성격을 갖는다. 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대가로 처벌과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온 그들이 자유와 행복을 찾아 사회를 등지고 그곳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였을 때 헤스터를 본 필은 “갑자기 난폭한 몸짓으로 온몸을 비틀며 발작적인 반응을 보인다”(134). 주홍글자를 떼어낸 가슴을 가리키며 그들에게 더 이상 다가오기를 거부하는 필을 보고 당황한 헤스터는 주홍글자를 다시 달게 된다. 그녀는 필이 주홍글자를 단

모습에 익숙해져 그것이 없어진 모습을 어색하게 느끼고 용납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다운 특성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니얼즈는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썰과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헤스터가 주홍글자를 떼어버리는 것은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며 이를 감지한 썰이 그들 세상의 질서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해석한다(233).

그때까지 주홍글자를 매개로 하여 사회와 소통하던 헤스터가 그것을 떼어버린 것은 사회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기로 한 결심의 표현이다. 이제까지 주홍글자만이 헤스터를 “사회에 구속시키는 장치”(56)로 남아 사회와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 그녀는 주홍글자가 부여한 의무를 통해 사회의 일부로 남아있었다. 그것을 떼어버리면 헤스터와 썰은 사회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썰은 지속적으로 주홍글자에 유난한 관심을 보여 글자와 자신의 존재와의 관련성을 감지하고 있음을 암시해왔다. 헤스터의 가슴을 가리키며 발을 구르고 날카롭게 소리치던 아이는 헤스터가 주홍글자를 다시 달고 나자 가까이 다가와 헤스터를 끌어안고 다정하게 엄마 얼굴에 입맞추고 “주홍글자에도 입을 맞춘다”(135). 썰의 존재는 그때까지 헤스터를 사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규범을 따르게 하였다. 주홍글자를 떼어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한 썰은 헤스터에게 그것을 다시 달도록 요구하여 사회를 등지려 했던 헤스터를 다시 사회의 규범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2. 썰과 딤즈데일

딤즈데일은 윌슨 목사(Reverend Wilson)의 말처럼 “헤스터의 영적인 삶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성직자로 청교도사회의 질서를 대표하는 인물이다(48). 그러나 그는 헤스터와 “같은 죄를 짓고 같이 괴로움을 겪는” 처지이다(49). 그는 헤스터처럼 옷에 불명예스런 글자를 달지는 않았지만 그녀와 같은, 아니 어쩌면 죄를 밝히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가책으로 인해 더 심한 고통을

겪는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간음죄를 숨긴 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는 헤스터를 단죄하기 위해 물려든 군중들 앞에서 간음 상대를 밝히도록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을 때 헤스터의 증언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에 대해 잘못된 연민과 온정으로 침묵하지 마시오. 헤스터, 내 말을 믿어오. 비록 그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수치스러운 단상에서 그대와 함께 서게 되겠지만 그것이 평생 죄책감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 나아요. 그대의 침묵은 그가 이미 지은 죄에 위선의 죄를 더하도록 유혹하는, 아니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함으로써 그대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악과 외적인 슬픔을 공개적으로 물리친 것이요. 그대의 입에 있는 쓰지만 온전한 그 잔이 스스로 그것을 잡을 용기가 없을지도 모를 그 남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부정하지 않도록 하시오.

Be not silent from any mistaken pity and tenderness for him; for, believe me, Hester, though he were to step down from a high place, and stand there beside thee, on thy pedestal of shame, yet better were it so, than to hide a guilty heart through life. What can thy silence do for him, except it tempt him—yea, compel him, as it were—to add hypocrisy to sin? Heaven hath granted thee an open ignominy, that thereby thou mayst work out an open triumph over the evil within thee, and the sorrow without. Take heed how thou deniest to him—who, perchance, hath not the courage to grasp it for himself—the bitter, but wholesome, cup that is now presented to thy lips!” (49)

이 장면에서 화자는 펄의 반응을 인상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목사의 진실이 담긴 설득에 헤스터의 가슴에 안긴 아기마저 “지금까지 허공을 향하던 시선을 덤즈데일에게 돌리고 쾌활한 것 같으면서도 슬픈 배냇소리를 내면서 작은 팔을 들어 올려” 공감을 표현한다(49). 덤즈데일이 펄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이 장면에서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는 소설 전체에서 펄이 목사에게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라는 암시를 보내는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딤즈데일은 영국에서 옥스포드를 졸업한 지성에 달변과 종교적 열정을 겸비하여 젊은 나이에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헤스터와의 간음죄를 털어놓지 못하고 비밀로 간직한 그의 내면은 사회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 죄를 고백하게 되면 사회의 비난과 단죄를 받게 될 터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의 내면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헤스터에게 간음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밝힐 것을 간곡하게 권고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부한다. 간음의 상대를 밝혀 아기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라는 말에도 그녀는 “내 아기는 하늘의 아버지를 찾을 것이며 이 땅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라고 답하며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는다(50). 죄가 드러나 내면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헤스터가 간음 상대인 자신을 지목하기를 바랐던 딤즈데일은 평생 자신의 죄를 밝히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면서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갈등을 겪는다.

펄의 양육권에 대한 논의가 있던 지사의 집 장면에서 펄은 딤즈데일이 죄를 고백하여 자신의 아버지임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암시한다. 펄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위기에서 헤스터가 딤즈데일의 도움을 청하자 그는 헤스터와 아기가 같이 있어야 할 당위성에 대하여 진지하고 열띤 호소를 한다. 말을 마친 그가 사람들에게서 물러섰을 때 “야생적이고 재빠른 요정 같은 펄이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 그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그 위에 뺨을 갖다 대는” 다정하고 꾸밈없는 애정표현을 한다(78). 펄은 마음속의 애정을 격렬하게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이렇게 행동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헤스터는 당황하며 낮설게 느낀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목사에게 호의를 나타내는 펄의 행동은 딤즈데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동시에 자신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처형대 장면에서도 딤즈데일과 펄의 관계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간음한 죄를 숨기고 사는 위선적인 생활에 극심한 죄의식을 느끼며 고통 받는 딘즈데일은 죄를 참회하기 위해 단식, 철야기도 등으로 자신의 몸을 확대하면서 급속하게 건강을 잃어간다. 그러나 육체의 병에서 오는 고통과 죄의식이 주는 영혼의 고뇌 속에서 그는 목사로서 빛나는 명성을 얻게 된다. 죄를 숨기고 통한에 시달려 온 그는 죄 많은 인간에게 저절로 공감하여 동정을 느끼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낀다. 그는 이를 슬프고도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토해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자신의 아픔이 배어있는 설교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을 주어 그를 우러러보게 만든다. 이렇게 대중의 존경을 얻게 되면서 자신의 죄와 위선에 대하여 그가 느끼는 고뇌는 더욱 커져만 간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하면 그를 옥죄는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딘즈데일은 연단에서 소리 높여 자신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싶어한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까지는 연단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으리라고 빈번하게 마음먹고, 실제로 그는 수없이 “자신이 아주 비열한, 가장 비열한 인간보다 더욱 비열한 인간이고, 극악무도하고 혐오 받아 마땅한 상상할 수도 없이 사악하다”고 고백한다(95). 그러나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위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자신을 책할수록 그 뒤에 숨어 있는 무서운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함으로 여겨져 더 큰 감동을 주게 되어 딘즈데일은 더 큰 흠모의 대상이 된다. “애매한 고백”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그가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교묘한 위선자”에 그치고 만다(96). 사실을 밝히기는커녕 자신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새로운 죄를 지으면서 그의 고뇌는 더 깊어진다. 게다가 의사를 자처하며 나타난 칠링워스에게 그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탐색의 기회와 자유가 허용되면서 딘즈데일은 철두철미하게 그에게 조종당한다. 칠링워스의 농간으로 목사는 더욱 극심한 내면의 고통을 겪게 되고 “차리리 죽는 게 더 나았을” 비참한 고통 속에 빠진다(111).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딤즈데일은 어느 날 밤 몽유병 환자처럼 헤스터가 치욕스럽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처형대로 간다. 헤스터와 펠에게 발견된 딤즈데일은 그들을 처형대에 올라오게 한다. 헤스터가 펠의 손을 잡고 올라오자 그가 아이의 다른 손을 잡아 그들은 셋이서 나란히 손잡고 서게 된다. 손을 잡은 순간 딤즈데일은 그의 마비되어 가던 생명력이 새로이 흘러넘치는 것을 느낀다. 세 사람이 “전기가 통하는 쇠사슬”처럼 모녀의 따뜻한 생기가 그에게 전해진다. 이때 펠은 딤즈데일에게 다음날 낮에도 셋이서 같이 서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펠은 웃음을 터트리면서 잡힌 손을 빼내려고 한다”(101). 자신의 손을 꼭 쥐면서 그대로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목사에게 펠은 다음 날 낮에 엄마와 자신의 손을 잡아준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다시 요구한다.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라는 그의 대답에 펠은 끈덕지게 그것이 언제인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만 그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딤즈데일에게 펠이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딤즈데일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버지임을 밝히면 펠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아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딤즈데일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인정하기를 바라는 펠의 소망은 반복적으로 표현된다. 헤스터가 딤즈데일에게 칠링워스의 정체를 밝힌 숲 속에서도 펠은 목사가 그들과 같이 마을로 돌아가게 되는지 묻는다. 칠링워스의 복수와 청교도사회의 억압을 피해 유럽으로 같이 떠날 계획을 세운 딤즈데일은 아버지로서 펠과 만나려고 한다. 헤스터는 “목사님은 펠이 좋대. 엄마도 좋고. 너도 목사님이 좋아지겠지? 자, 너를 보고 싶어 하셔”(135)라고 말하며 펠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이 말에 펠은 “우리와 손잡고, 셋이 같이 마을로 돌아가게 되나요?”라고 묻는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자 펠은 목사에게 호감을 거두고 심술궂은 표정을 지어 보인다. 당황한

덤즈데일은 아이를 달래려고 펄의 이마에 입을 맞추지만, 펄은 뿌리치고 달아나 개울가에 웅크리고 앉아 “기분 나쁜 입맞춤의 느낌이 씻겨 내려갈 때까지 이마를 닦는다”(136). 세 사람만 있을 때에는 다정스럽게 애정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는 척하는 덤즈데일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펄은 인정하지 않는다.

새 지사가 취임하는 축제일에도 펄은 덤즈데일이 숲 속에서처럼 자신에게 두 손을 내밀어 맞아주게 될지 물어본다. 그를 아는 척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엄마도, 이상하게 행동하는 목사도 펄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두운 밤에는 우리를 불러 엄마와 내 손을 잡아 주시고. 전에 처형대 위에 섰을 때처럼. 또 고목들만 듣고 하늘만 보고 있는 숲에서는 엄마와 이끼더미 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 이마에 입을 맞춰서 시냇물로도 씻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처럼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모르는 척 해야 한대. 항상 가슴에 손을 얹는 이상하고 슬퍼 보이는 목사님이야!

In the dark night-time he calls us to him, and holds thy hand and mine, as when we stood with him on the scaffold yonder! and in the deep forest, where only the old trees can hear, and the strip of sky see it, he talks with thee, sitting on a heap of moss! And he kisses my forehead, too, so that the little brook would hardly wash it off! But here, in the sunny day, and among the people, he knows us not; nor must we know him! A strange, sad man is he, with always over his heart! (145-46)

마침내 덤즈데일은 자신의 죄를 청중 앞에서 털어놓기 위하여 헤스터의 도움을 받으며 펄의 손을 잡고 군중을 향해 선다. 펄이 그토록 원했던 대로 사람들 앞에서 세 사람이 손잡고 나란히 서게 된 것이다. 군중들은 몹시 놀랐으나 눈물을 흘리며 넘쳐흐르는 동정심을 보여준다. 7년 전에 헤스터가 주홍글자를 달고 서서 치욕을 당했던 그 자리에 서서 덤즈데일은 헤스터와 같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내면에 숨긴 비밀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외롭고 고통스런 세월을 지내 온 그가 죽음을 앞두고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밝힌 것이다. 지은 죄를 숨기고 죄책감과 자신의 위선에 대한 혐오감으로 세상을 멀리했던 그는 죄를 고백함으로써 다시 그 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또한 그의 고백과 죽음은 사회를 등지고 함께 영국으로 떠나기로 했던 헤스터와의 약속을 무효로 만든다. 고통을 주는 사회를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하려던 그들은 덤즈데일이 사회에 남는 선택을 하면서 결국 사회와 타협하게 된다.

그가 죄를 고백하자 숲 속에서 입맞춤을 거부했던 펄은 기꺼이 그의 입술에 입맞추고 “저주가 풀린다”(A spell was broken 162). 이제까지 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덤즈데일이 그것을 고백하는 고뇌의 현장에서 펄이 딸로서 흘린 공감의 눈물이 아버지의 뺨에 떨어진다. 그 눈물이 “이제 사람의 기쁨과 슬픔 속에서 자라서 세상과 싸우는 일 없이 훌륭한 여성이 되겠다”(162)는 약속이라고 화자는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그때까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소외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덤즈데일의 죄의 고백은 본인은 물론 펄이 사회와 화해하는 계기가 된다.

3. 펄과 칠링워스

아내 헤스터를 먼저 뉴잉글랜드로 보내고 남은 일을 마친 후 늦게 떠난 칠링워스는 신대륙에 도착하여 원주민에게 억류당한다. 오랫동안 소식이 두절되었던 그는 마을에 당도하자마자 헤스터가 공개처벌 받으면서 명예가 짓밟히는 광경을 목격한다. 헤스터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녀의 죄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칠링워스는 “부정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욕된 불명예”를 자초할 생각은 없었다(54). 헤스터 이외에는 아무도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녀만 입을 다물면 그의 신원이 드러날 위험은 없다.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실종된 사람으로 여겨졌고, 헤스터는 남편이

없는 정황이 참작되어 간음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인 사형을 면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아내의 간음의 상대를 찾아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는 로저 칠링워스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칭하고 의사 행세를 한다. 감방에서 헤스터에게 죄의 상대를 캐묻지만 대답이 나올 리 없다. 그는 간음상대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하는 그녀에게 자신의 정체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한다. 정체를 숨긴 채 상대 남자를 찾아내어 복수를 하고 말겠다는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준 헤스터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신의 정체를 숨김으로써 사회와 관계 맺기를 거부한 칠링워스는 복수의 일념으로 학자다운 면모를 잃고 타락해간다. 그는 덤즈데일의 내면세계를 엿보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서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해간다.

헤스터와 결혼할 때 그는 나이는 들었지만 성실하고 학문적이며 사색적인 생활을 하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끝없는 지식에 대한 욕구로 한창 때가 지나버리고 나이가 든 그는 쓸쓸하고 냉기가 도는 집에 젊고 아름다운 헤스터를 아내로 맞아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자 한다. 학문적 재능으로 흥하고 늙은 신체적 결함을 덮어버리고 젊은 아내가 만들어내는 따뜻함으로 “누구나 끊어모을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작은 행복”을 찾으려 한 것이다(53). 피스터는 이런 칠링워스의 태도에 여성의 역할을 따뜻한 가정을 꾸며 사회생활에 지친 남편이 그 안에서 따뜻하고 안정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여기던, 당시 미국사회를 지배하던 ‘가정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한다(6).

19세기 미국사회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경쟁적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로 인해 도덕적 타락이 가속화된다. 가정이데올로기는 부도덕한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장소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분리된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제한되고 여성에게는 이상적인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부여된다. 여성은 가족을 도덕적 존재로 이끌 수 있는 모범이 될 만한 도덕적 품성을 요구

받는다. 근대 시장사회에서 아내의 역할은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생활에 지친 남편이 육체적 피로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통한 도덕적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가정을 가꾸는 것이었다. 칠링워스는 학문 추구라는 공적 영역에 몰두하다가 육체적 피로와 정서적 고갈을 느끼게 되면서 헤스터에게서 가정의 따뜻함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헤스터는 칠링워스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였고 칠링워스 또한 젊고 아름다운 헤스터와 늙고 흉한 자신이 이를 가정이 이상적인 공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칠링워스는 가정에서 따뜻함과 평온함을 구하던 자신의 기대가 깨진 것을 “그들 둘 모두를 배신한”(53) 남자의 책임으로 돌려 그를 찾아내어 복수를 하겠다고 버른다.

칠링워스는 남자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헤스터에게 “언젠가는 내 손으로 그를 꼭 찾아내겠다”고 단언한다(54). 복수심은 그를 “현명하고 올바른 학자에서 악마로 변하게” 한다(113). 순수하고 곧은 학자로서 세상과 원만하게 지내온 그가 상대 남자에 대해 탐색을 시작할 때는 걱정이나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과 관계없이 엄정하고 중립적인 판관의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이상한 매력이 노인을 지배하여 그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온화하고 걱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던 “그의 얼굴에는 보기 흉한 사악한 기운”이 감돌게 된다(85-6). 그는 강렬한 복수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집착한다. 응당 벌을 받아야 할 헤스터의 간음 상대가 비밀로 묻혀 벌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죄인을 찾아내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가슴과 분리된 지성”에 의한 복수를 감행한 칠링워스는 존엄한 인간의 신성한 영혼을 파헤쳐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된다(Miller Jr. 92-93). 그는 순수하고 신앙심 깊은 목사의 내면을 집요하게 파헤쳐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캐내기 위하여 공포와 양심의 가책, 고뇌, 후회, 죄의 유혹 등 모든 것을 털어놓게 하려고 한다.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죄를 가진 사람이 증오심에 사로잡혀 보복을 노리는 적의 앞에서 그 죄를 털어놓는 것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칠링워스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칠링워스는 덤즈데일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다”(93). 예선 브랜드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찾아내기 위하여 에스더(Esther)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그녀의 영혼을 넘보며 황폐화시키고 소멸시켰던 것처럼 그는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목사를 조종하여 죄의식에 사로잡힌 고뇌나 발작적인 공포나 강한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한다. 덤즈데일은 계속 “어떤 사악한 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감지하지만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을 “숨긴 비밀에서 나오는 독이 마음을 온통 병들게 하고 있다”고 애써 생각하며 의혹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한다(93). 수상쩍은 노의사가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을 탓하며 칠링워스와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복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칠링워스는 목사의 주치의로 그와 같은 집에서 살며 그의 육체를 돌보면서 그의 마음을 점점 더 병들게 하는 복수를 자행한다.

그러나 복수에 몰두한 칠링워스는 자신도 역시 희생자인 덤즈데일과 마찬가지로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 “무참하게 배신당한” 그는 “끝없는 복수라는 무서운 독에 의지하여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자신도 엄청난 괴로움을 겪는다. “전에는 인간다운 마음의 소유자였던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악마가 되어버려” 희생자인 덤즈데일 못지않게 파멸되어 가고 있었다(112). 7년 사이에 변해버린 그의 모습은 헤스터를 무척 놀라게 한다. 적의 정체도 모른 채 복수의 제물이 되고 있는 덤즈데일에게 전남편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하고 그 사실을 알리려고 칠링워스를 찾아온 헤스터는 평화롭고 온화하던 그가 무시무시한 악마로 변한 것을 알게 된다.

칠링워스는 깊은 상처 때문에 복수에 매달려 악마로 변해버린 자신을 가엾게 여기면서 복수를 포기하고 이전의 인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헤스터의 간청을 무시한다. 칠링워스에게는 목사를 용서하고 복수를 포기하여 악마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기회가 남아있었다.

홀링스워스는 죄지은 인간을 갱생시키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자신의 이상을 위하여 제노비아를 비롯한 주변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죄에 빠지지만 제노비아의 죽음으로 너무 늦기 전에 계획을 포기하여 죄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칠링워스는 복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괴로움을 헤스터의 잘못으로 인해 뿌려진 악의 씨 때문에 생긴 “필연적인 운명”(113)으로 돌리며 복수에 모든 것을 걸게 된다. 덤즈데일이 자신의 죄를 청중 앞에서 털어놓으려고 처형대에 올라가자 칠링워스가 나타나 “모든 게 잘될 거야! 명성을 더럽히고 불명예스럽게 죽을 필요 없어! 내가 아직 당신을 구할 수 있어! 성직에 먹칠을 하려는 거야?” 라고 말하며 고백을 막으려고 한다(159). 덤즈데일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조종하며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던 그는 목사가 비밀을 털어놓고 자신의 수중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목사의 병을 치료하면서 그의 내면을 파헤쳐 비밀을 알아내고도 칠링워스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았었다. 덤즈데일의 지위와 명예를 유지하게 하는 한편 은밀하게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고통과 회한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는 사악한 복수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복수에 대한 집착으로 도덕성과 사람들과의 공감능력을 잃은 칠링워스의 내면은 완전히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 그는 “인간성의 자력 같은 유대관계를 잃고” 냉혹한 지성으로 덤즈데일의 가슴속 비밀을 캐내는 죄를 저지른다.³⁵ 칠링워스는 자신이 조종하는 대로 고통에 시달리던 덤즈데일이 죄를 고백하여 복수할 대상을 잃게 되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목사가 죽은 같은 해에 죽고 만다.

덤즈데일이 죽자 삶의 이유를 상실한 것처럼 칠링워스의 외모와 행동은 급격히 허물어져간다. 그의 능력과 기력, 그의 생기와 지력도 모두

³⁵ 「에션 브랜드」에 나온 표현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lost his hold of the magnetic chain of humanity” (*The Snow-Image and Uncollected Tales* 99).

한꺼번에 그에게서 빠져나가, 뿌리 뽑힌 잡초가 햇볕에 시드는 것처럼 생기를 잃고 사그라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All his strength and energy—all his vital and intellectual force—seemed at once to desert him; insomuch that he positively withered up, shriveled away, and almost vanished from mortal sight, like an uprooted weed that lies wilting in the sun. (163-64)

그는 죽으면서 영국과 미국에 남긴 막대한 재산을 헤스터와 덤즈데일의 딸이자 법적으로는 자신의 딸인 펄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처형대에서 아기를 안고 수모를 당하던 날 밤에 칠링워스가 신경이 날카로워진 펄을 약물로 진정시킬 때 헤스터는 그가 아기를 헤칠까 봐 두려워한다. 그는 “이 아기가 당신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 해도”(52) 더 잘 보살펴줄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 아이가 만일 칠링워스의 아이였다면 “함께 안락한 가정을 꾸미며”(79) 그때까지 그가 지녔던 학자다운 면모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아기를 낳은 아내가 죄인의 전형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복수심과 증오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도 또한 헤스터나 덤즈데일의 삶보다 나은 게 없는 외롭고 고통스런 삶을 살았던 것이다. 헤스터와 덤즈데일의 딸인 펄에게 유산을 남긴 것은 정체를 숨긴 채 사회를 등지고 고독하게 살던 칠링워스가 죽으면서나마 그들과 화해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삶을 마감하면서 “다같이 서로의 희생자”(164)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준 상처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이 그들에게 지은 죄를 펄을 통해 사죄한 것이리라. 칠링워스는 펄을 통해서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 그리고 그가 고통을 준 사람들과 화해한 것이다.

『주홍글자』의 주요 인물들은 사회의 규범을 어기고 죄를 지어 사회에서 배척당하거나 사회에 등을 돌려 외롭고 고통스런 삶을 살아간다. 어린아이 펄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죄의 씨앗으로 여겨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하여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낸다.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에서 배제되어 외롭게 자라는 펄은 어려서부터 기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 이런 펄의 모습의 이면에는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 있으며 이 소설에는 호손이 지향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 한편, 억압적인 사회와 갈등을 겪던 인물들이 마침내 사회와 타협하거나 화해하고 그들의 참여로 사회가 지속성을 갖고 유지된다는 자신의 생각을 형상화해 낸다. 헤스터는 사회와 떨어져 지내면서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내면의 자유를 얻고 명상을 통해 사회의 모순과 억압을 깨닫는다. 화자는 혁명적인 사유를 하게 된 헤스터가 아주 조용하게 사회의 규율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을 펄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녀의 과격한 사상이 펄을 키우는 데서 그 배출구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펄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 속에서 개인이 사회를 등지지 않고 화해하게 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에서 소외되어 고독과 고뇌 속에서 지내던 헤스터, 덤즈데일, 칠링워스가 펄을 통하여 사회의 가치체계와 규범을 받아들이고 그 테두리 안에 머물게 된다. 덤즈데일의 죄 고백, 칠링워스의 유산, 헤스터의 귀환으로 사회의 적법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 펄은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

제4장 아동의 사회적 역할과 아동문학에 대한 호손의 관심

『주홍글자』에서 갈등을 겪던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서 단절이 아닌 화해를 지향하는 호손은 그 관계의 회복에서 필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주홍글자』를 집필하기 전부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이들이 주인공인 작품을 꾸준히 썼다. 호손의 아동문학작품에는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사회와 영향을 더 많이 주고받으며 사회의 지속과 개선을 위해서는 그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사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의 견해가 나타나 있다. 아동문학에 나타난 호손의 시각과 입장은 『주홍글자』에서 그가 필에게 부여한 역할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호손 리뷰(*Nathaniel Hawthorne Review*) 2010년 봄호는 호손의 아동문학(*Hawthorne's Literature for Children*)에 대한 비평 특집으로 여기에 나타난 교육, 역사, 인종, 정치, 여성 문제 등을 분석한 10편의 글을 모아 싣고 있다. 이 글들에서는 아동 잡지에 글을 쓰면서 작가 생활을 시작한 호손의 삶과 아동문학작품을 쓴 그의 의도, 그리고 꾸준히 달라져온 아동문학의 위상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호손과 그의 다른 작품에 대한 높은 평가에 비하여 아이들을 대상으로 쓴 많은 작품들은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그의 아동문학에 대한 비평적 조명이 증대하고 문학작품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9세기 전반기 미국사회는 아이를 보는 시각과 교육에 대한 입장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³⁶ 청교도 교리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아이들의

³⁶ 어린이를 원죄에 의해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보는 칼뱅주의적 견해는 어린이의 순수성을 믿는 개신교 신학과 관행으로 대체된다(Brown, "Hawthorne's American History" 128). 또한 영국을 비롯한 유럽대륙에서 인간의 부패하지 않은 잠재력을 강조하는 낙관론과 낭만주의적 사상이 힘을 얻게 되면서 1830년대에

양육은 엄격한 훈육으로 아이의 타고난 사악한 본성을 억제시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 본질적으로 사악하게 태어난 인간의 구원은 신의 은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불완전함과 신의 섭리에 대한 체험고백인 ‘회심’(conversion)이 중요한 과정이 된다. 19세기 초반까지도 미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타고난 타락 상태를 교정하는 처벌을 중시하는 엄격한 양육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내면을 ‘백지상태’(the blank slate)로 본 로크와 에밀(Emile)을 본질적으로 순수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아이로 그린 루소에 이어 어린아이를 ‘죄 없는 상태’로 이상화시키는 낭만주의 사조가 유럽을 풍미하면서 미국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Sanchez-Eppler 145). 어린아이의 본성을 보는 인식의 변화는 호손의 초기작품인 「유순한 소년」의 이브라힘과 「꼬마 애니의 산책」의 애니의 모습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이브라힘은 퀘이커교도의 아이이다. 그는 아버지가 처형당한 날 밤에 아버지가 묻힌 언덕에서 숨죽여 울고 있다가 밤늦게 집으로 가던 청교도에게 발견된다. 그가 처한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브라힘은 “조용하고 귀여운” 아이, “기품과 당당한 태도,” “침착하고 단정한 행동,” “듣기 좋고 생기 있는” 목소리 등으로 표현된다. “어린 시절의 행복은 천진난만함에서 흘러나온다”는 말과 함께 청교도 아이들도 밝게 묘사되고 청교도아이들이 이브라힘에게 적개심을 보이며 괴롭히는 것은 부모들이 종교가 다른

이르러 미국의 초월주의는 인간의 내면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인간성에 대한 낙관적인 신뢰를 표명한다. 인간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아이의 양육방식과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변화를 가져온다. 호레이스 부쉬넬(Horace Bushnell)은 기독교적 양육이 죄를 씻어내는 세례의식과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타락한 아이를 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아이의 양육방식이 변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이 좋은 것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시기이며 아이의 내면에 있는 악을 억누르는 것보다 선을 장려함으로써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양육하는 길이라고 여겼다(21, 50).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설명되면서 어린아이는 본질적으로는 순수하다는 점이 강조된다(*Twice-Told Tales* 52-67).

애니는 ‘무구한 아이’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외국에서 온 진기한 동물들을 구경하라는 외침을 듣고 아이는 화자인 노인의 손을 잡고 동네 구경을 나선다. 꾸밈없이 솔직하고 순진하기 그지없는 당찬 모습의 애니는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는다. 사람들은 “아주 나이든 사람을 존중하듯이 어린 애니를 존중하여” 지나가는 아이에게 길을 비켜준다. 구경거리인 진기한 동물들도 “애니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마을에 온 것처럼 보이고 장난감 가게를 지날 때 애니는 인형들과 견주어도 “가장 예쁜 요정”이다. 애니는 “깨끗하고 천성적인 감수성”을 가진 아이이다. 애니와 산책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는 “순수한 아이의 숨결로 나이 든 사람의 생명력이 되살아나듯이 아이들의 자유롭고 단순한 생각과 타고난 감정, 활기찬 웃음으로 도덕성도 새로워진다”고 느낀다. 순수한 아이들에게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 지친 어른에게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Twice-Told Tales* 91-96).

호손은 많은 단편들을 익명으로 잡지에 기고하다가 1837년에 그때까지 발표된 작품들을 모아 『오래된 이야기』(*Twice-Told Tales*)를 출간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그 후 호손은 20여 년에 걸쳐 꾸준하게 아동용 독자용 한 작품을 썼다.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와 본국이었던 영국 사이의 갈등을 다룬 『할아버지의 의자』와 후속 이야기들, 유명한 인물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어린이를 위한 위인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아이들에 맞는 이야기로 다시 고쳐 쓴 『어린이를 위한 놀라운 이야기』와 『탱글우드 이야기』(*Tanglewood Tales, for Girls and Boys; Being a Second Wonder Book*) 등이 있다. 이런 책들이 나오기 전에도 호손은 굤리치(Samuel G. Goodrich)가 발행하는 아동 잡지의 편집을 맡기도 하였고 피터 팔리

연작(Peter Parley Series) 중 두 권을 익명으로 쓰기도 하였다.³⁷ 그를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주홍글자』이지만 호손은 그것을 쓰기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꾸준히 아이들을 독자로 하는 작품을 쓴 것이다.

호손이 거의 일생에 걸쳐 쓴 아동문학작품은 발표될 당시에 대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후 꾸준히 출판되고 연극화되기도 하는 등 인기가 있었다(Laffrado, “Hawthorne 2.0” 29). 그러나 평론가들의 긍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호응까지 얻어 호손의 경제적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그의 아동문학은 학계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³⁸ 그의 다른 작품들은 미국문학의 중심부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연구되어 온 반면 아동문학작품은 호손이 단지 생계방편으로 쓴 것으로 치부되면서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³⁹ 그는 롱펠로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이들을 독자로 하여 글을 쓰는 것이 ‘지겨운 일’(drudgery)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The Letters* 252). 호손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동문학을 경시하는 학계의 풍토와 맞아 떨어지면서 그의 글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동문학작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Laffrado, “Hawthorne 2.0” 43). 학계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호손의

³⁷ 굴리치가 팔리라는 노인을 화자로 하여 연속하여 간행한 책으로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호손은 그중 두 권으로 된 *Peter Parley's Universal History on the Basis for Geography, for the use of Families*를 썼다.

³⁸ 호손은 가장 성공적인 소설이었던 『주홍글자』에서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아동문학작품을 써서 벌었다. Hawthorne's combined lifetime earnings from his juvenile fiction of \$2,460, plus £50 in British royalties, exceeded the sales of even his most successful adult novel, his life time earnings on *The Scarlet Letter* amounting to only \$1,500. (Laffrado, *Hawthorne's Literature for Children*, Karen Sanchez-Eppler 148 재인용)

³⁹ 호손이 대학 졸업 후 경제문제를 해결하던 맨닝가(Manning family)에서 운영하는 역마차 사업이 철도건설로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는 주로 글을 써서 생계를 해결하게 된다.

아동문학작품은 1960년에 그의 100주기를 기념하여 발간되기 시작한 작품전집에 수록이 되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한다.

19세기 초반 미국에서는 호손의 작품 이외에도 아이들을 독자로 하는 작품들이 많이 출간되었다.⁴⁰ 영국에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 온 청교도들에게 영국문학과 구별되는 토착적인 일반 문학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어린 세대를 위한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자 많은 아동잡지가 생겨나고 아이들을 독자로 상정하여 쓴 글이 많아진 것이다. 새로 독립한 민주주의 공화국의 특별함에 대한 신념과 독립을 이룬 긍지, 미국적 사명에 대한 자신감 등으로 충만한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유럽의 글을 읽게 내버려 둘 리 없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아이의 양육에 관한 글이나 교훈적인 작품을 영국에서 들여오던 미국은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적 가치를 어린 세대에게 주입시킬 수 있는 미국 작가의 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아동 잡지에 실리거나 단독으로 출판된 대부분의 글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통하여 어린 독자들에게 미국적 전통과 이상을 심어줄 의도를 갖고 있었다(Crandall 3-4).

아이들을 사회화시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작품에 작가들은 미국사회를 특별하고 다른 사회보다 우월한 완벽에 가까운 이상화된 모습으로 그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미국사회에 들끓던 개혁 열기 속에서 작가들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빈곤, 음주, 매춘, 노예제 등 갖가지 문제가 노정된 당대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려내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되었다. 그들은 사회에 대한 아이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빈곤이나 음주 등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를 사회구조와는 상관없는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절제의 탓으로 돌리고 개인의 재활의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개별적인 자선을 장려하는 것으로 문제를

⁴⁰ 크렌달은 1826-65까지 주요 잡지에 실린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글 외에 10,000편 이상의 작품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쓰고 있다.

비껴갔다. 1830-40년대에는 노예제도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면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아동문학작품들이 간혹 있었으나 1850년대에 들어오면 노예제폐지를 옹호하는 글들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당시 노예제를 둘러싼 첨예한 사회적 갈등에 대하여 연방의 유지라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아동문학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아동문학작품은 아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긍지를 느끼게 하고 애국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보수적인 개혁을 강조하며 노예제에 있어서는 연방의 유지와 사회의 안정을 강조하는 전통적이고 애국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Crandall 5-22).

아동을 위한 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로 가정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당시의 타락한 산업사회에서 가정을 도덕성을 지켜줄 보루로 상정하는 가정이데올로기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여 미국사회를 이끌어 나갈 도덕적 존재로 사회화시키는 것을 이상적인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여겼다. 자녀의 양육에서는 청교도적인 엄격한 통제가 아닌 ‘애정에 의한 감화’가 중시되었고, 자녀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시키는 한 방법으로 독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동문학의 범람과 가정소설 또는 감상소설(domestic or sentimental fiction)의 인기를 부추긴 면이 있다(Brodhead, “Sparing the Rod” 90). 주로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성작자에 의해 쓰인 감상소설에는 당시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여성적 경험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Voloshin 283). 『톱 아저씨의 오두막』에서 가정은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역 등에서 가치 있는 행동의 중심이며, 그 영향력이 사회로 확대되어 가는 구심으로 그려진다. 톱시(Topsy)는 에바(Eva)의 사랑에 감화되어 도덕성을 회복하게 되고, 이들의 관계를 통해 오펠리아(Ophelia)는 엄격한 훈육이 아닌 사랑의 힘이 도덕성을 갖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영국에서 출판된 책들을 들여와 다시 출판하던 굳리치는 미국에서 쓰인 아동문학작품을 출판하면서 직접 작품을 쓰기도 한 대표적인 아동문학

작가이다. 호손의 초기작은 대부분 굳리치가 발행한 『토큰』지를 통하여 익명으로 발표되었고 피터 팔리 연작에서 두 권은 호손이 익명으로 그의 누이와 함께 집필하였다.⁴¹ 아동문학의 교육적인 목적이 중시되던 상황에 걸맞게 피터 팔리 연작에는 도덕과 정보와 오락이 절묘하게 섞여 있었다. 여기에서 피터 팔리는 다리에 통풍을 앓는, 늙고 말하기 좋아하는 이야기꾼 선생님이로 작품이 인기를 누리게 된 중요한 장치이다.

호손의 「꼬마 애니의 산책」이나 『할아버지의 의자』는 할아버지가 화자로 등장하거나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점에서 피터 팔리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두 사람의 작품은 아이들에 대한 태도나 내용에서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굳리치는 전체 작품을 통하여 피터 팔리의 목표가 재미보다 교훈이 우선임을 강조한다. 반면에 호손의 작품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야기와 교훈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Sanchez-Eppler 147). 19세기 초반의 아동문학에서 애니처럼 집을 나와 길에서 헤매는 아이는 흔한 소재였다. 이런 이야기는 바깥세상의 위험을 환기시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집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뜻한 난롯가에서 책이나 읽으며 집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그러나 호손의 이야기는 그런 전통적인 교훈에서 벗어나 있다. 이야기의 화자는 세상으로 나가 돌아다니는 것이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아이가 도덕적이 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보다 즐겁게 지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호손은 교훈적이고 무미건조한 이야기에 반감을 느끼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⁴¹ 당시에 아동문학을 하는 것은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이 되지 못했다. 굳리치도 역시 그의 대표작으로 170권이 넘는 피터 팔리 연작을 익명으로 출간하였다.

문학적인 목적보다 교육적인 목적이 우선시 되던 책이나 잡지를 출간하는 데는 성직자나 교육자, 여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Crandall 4).

지워버린다. 애니는 피터 팔리의 교훈적인 책을 많이 읽었지만 당시로서는 구하기 쉽지 않은 동화책을 더 좋아한다. 동물천막에 있는 이국적인 동물들은 이솝우화의 동물들에 견주어진다. 거기서 본 늑대는 빨간 모자 소녀와 할머니를 잡아먹은 바로 그 늑대가 된다. 멍청해 보이는 하얀 곰은 실은 만년설로 덮여 있는 북극에서 뒹굴고 있을 아기 곰을 그리워하고 있다. 호손은 상상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훗날 그의 로맨스에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로 강조된다.

애니의 모습에는 당시에 변화를 겪던 아이들의 본성에 대한 시각과 교육철학이 반영되어 있다(Valenti 5). 아이들이 천성적으로 순수하다는 생각을 갖기 전에는 원죄를 타고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강압적으로 부모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나쁜 품성을 눌러 바로잡아 주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여겨졌다(McLoughlin 20). 이런 풍토가 바뀌면서 아이들의 정신적, 지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동화를 읽게 하여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시되었다. 아이들이 강요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읽고 뛰어 노는 가운데 타고난 선한 본성이 발현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이들이 타고난 타락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었다.⁴² 그들은 이제까지의 교훈적인 아동문학과는 다른 호손의 작품을 비난하기도 한다(Valenti 7). 호손과 초월주의자들이 보여준 아이들 본성에

⁴² 아이들의 본성을 원죄에 의한 타락 상태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엄격한 훈육에 의해서만 아이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여겼다. Evangelical parents did not share the optimism of romantic Transcendentalists who were coming to believe, like Wordsworth, that children came into this world directly from heaven—pure and undefiled. Hence they had no use for educational reformers, like Bronson Alcott, who thought that the basic duty of parents was simply to cultivate or elicit an innate goodness of the young. Evangelicals of all denominations continued to believe that children still had much of the old Adam in them—they had sinful propensities that must be checked. (McLoughlin 23)

대한 관점은 당시의 지배적인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호손의 작품에서 순진한 애니에게 타락의 조짐이 보이는 변화는 호손이 큰 딸인 우나를 키우면서 자주 겪게 되는 경험과 연결된다(Sanchez-Eppler 153). 펄의 모습은 아이가 본질적으로 무구한 존재라는 호손의 믿음과 실제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가 경험한 아이들의 모습이 합해지면서 나온 혼합물이다. 우나의 모습은 『주홍글자』에서 헤스터를 찢찢매게 하는 펄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호손에게 아이의 본성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⁴³ 호손은 인간이 원죄를 타고난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아이의 순수함에 대한 낭만주의적이고 초월주의적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우나의 모습에서 호손이 느끼는 당혹감은 펄이 과연 자신의 딸인지 의아하게 여기던 헤스터의 복잡한 심경을 떠올리게 한다. 우나와 두 아이의 아버지로 그들의 성장과정을 지켜본 호손이 아이들에 대해 가지게 된 생각은 그들을 키우기 이전에 그가 가졌던 인식과는 달랐을 것이다.

호손이 아이의 이중성이나 불가해한 모습을 경험하기 전에 쓴 동화에서 애니가 순수하고 무구한 모습이지만 일탈의 가능성이 감지되는 점은 당시의 복잡한 사회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아이들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아이에게 악한 본성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애니의 모습에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인식이 공존하던

⁴³ 호손이 우나에 대해 쓴 글에는 펄에 대한 표현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But, to return to Una, there is something that almost *frightens* me about the child—I know not whether *elfish* or *angelic*, but, at all events, *supernatural*. She steps so boldly into the midst of everything, shrinks from nothing, has such a comprehension of everything, seems at times to have but little delicacy, and anon shows that she possesses the finest essence of it; now so hard, now so tender; now so perfectly unreasonable, soon again so wise. In short, I now and then catch an aspect of her, in which I cannot believe her to be my own human child, but a spirit *strangely mingled with good and evil*, haunting the house where I dwell. (*The American Notebooks* 430-31 인용자 강조)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펠에게 훨씬 복잡하고 모순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들의 모순된 모습을 지켜본 호손의 경험이 작용하고 있다.

애니와 동네 구경을 나선 친절한 할아버지가 등장하는 방식은 『할아버지의 의자』에서는 네 명의 손자 손녀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설정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의자 곁에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역사를 익힌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위압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다.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알려지지 않은 세부사항을 유추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상상적 권위”(imaginative authority) 이외의 권위는 필요하지 않다(*True Stories* 6). 애니를 데리고 동네구경을 하는 할아버지처럼 의자에 얹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에게 나쁜 본성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억제하려는 강압적인 교육방식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양립할 수가 없다. 할아버지는 인자하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 줌으로써 그들이 타고난 본성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할아버지는 미국 역사 속의 뛰어난 인물들과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아이들이 좋아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옛날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한다. 의자가 겪는 모험을 통하여 “진짜 역사”(authentic history)의 흐름을 엮어내는 것이 작가의 목표이다(*True Stories* 6). 의자는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세일럼과 보스턴에 정착하기 시작하던 시절의 초기에 의자의 주인과 함께 미국 땅으로 건너온다. 주인이 죽고 나서 의자는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지금은 그 의자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다. 의자는 2-3세기 전에 영국에 있는 한 백작의 집 마당에서 자란 참나무로 제작된 것으로 의자 뒤에는 그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백작의 딸인 아벨라(Arbella)는 결혼 선물로 그 의자를 받는다. 청교도였던 남편을 따라 매사추세츠로 건너오게 된 아벨라는 의자를 배에

실어서 미국으로 가져온다. 그 배는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 아벨라호로 명명되었는데 그 배가 속한 함대에 메이플라워(Mayflower)호라고 하는 배도 있었다. 연약한 아벨라는 긴 항해와 거칠고 황량한 낯선 땅에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주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죽는다. 그녀가 죽자 이에 상심한 남편도 한 달도 안 되어 죽고 만다. 아벨라와 남편이 나란히 땅 속에 묻히게 되면서 여러 번 소유주가 바뀐 의자는 하버드대의 첫 졸업식에서 다시 선보였고 그 후에 선출된 여러 명의 지사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말 그대로 공식 행사용 의자”(32)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많은 인물들과 워싱턴(Washington) 장군이 앉았던 의자는 장군의 이발을 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이발사의 가게에서 18년간 묻혀 지낸다. 그 후 메사추세츠 지사가 된 사무엘 애담스(Samuel Adams)가 의자에 얽힌 이야기를 알게 되어 그 의자의 행방을 수소문한다. 그가 찾아 낸 의자는 그가 죽고 나서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경매에 부쳐지고 할아버지가 이를 구입하게 된다.

여기서 의자를 거쳐간 사람들은 “생생하고 잘 알려져 있는 지식을 어린 독자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삶과 행동이 당대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가장 알맞은” 사람들이다. 이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의 생애와,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과정에서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역사는 이제 그저 별 상관없는 남의 얘기가 아닌 “난롯가에 있는 의자라는 현실에서 친숙한 실체와 연관이 있는” 것이 되면서 생명력과 현실감을 얻게 된다(*True Stories* 5).

질리언 브라운(Gillian Brown)은 아이들을 위한 역사를 쓰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선 호손이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애국심을 기를 수 있는 상상적인 기초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한다(123). 아이들을 위한 역사를 쓰면서 낭만적으로 애국심을 구성해내고, 아이들과 공상, 역사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였다는 것이다. 호손은 미국의 건국에 기여한 많은 인물들을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실제적이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인물로 그려낸다. 이를 통하여 책을 읽는 아이들 역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손자 손녀들과 공감을 느끼면서 역사적 인물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국의 백작 딸인 아벨라를 미국 역사의 맨 처음에 등장시켜 식민지 미국에서의 삶을 생생하고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로 만든다. 할아버지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크게 한 역할도 없이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죽는 아벨라의 슬픈 이야기를 부각시키거나 식민지를 확장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미국 인디언이나 프랑스 이주민들, 퀘이커교도, 영국의 왕당파들이 겪은 불행을 거론한다. 미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과 패배한 사람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역사란 주류를 차지하는 중요한 인물들의 행적의 연대기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측면과 불안정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애국심에 수반되는 동일시의 상상적인 과정에서 “국가적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그것에 저항하는 미국적 애국심”을 설명해낸다(Brown 122).

『어린이를 위한 놀라운 이야기』는 호손이 그리스 신화를 아이들에게 맞게 고쳐 쓴 것이다. 「마이다스 이야기」(“The Golden Touch”)에서 왕에게는 메리골드(Marygold)라는 이름의 딸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마이다스 왕은 딸을 너무도 사랑하여 많은 금을 물려주고 싶어한다. 그는 한 때 장미를 좋아하여 멋진 장미정원을 꾸미고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으나 금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해져서 금을 제외한 다른 것에는 흥미를 잃게 된다. 왕의 금에 대한 탐욕은 딸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된다. 아이를 사랑할수록 금에 대한 욕심도 커지면서 그는 아이가 같은 무게의 금만큼이나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모든 것을 금으로 바꾸는 능력이 생긴 왕은 기뻐하지만 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는

오히려 정원의 장미가 금으로 바뀐 것을 보고 슬퍼한다. 왕이 아이를 달래려고 이마에 입맞추는 순간 아이는 황금동상으로 변하여 말 그대로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 금덩어리가 된다. 그제서야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온 세상을 다 채울 수 있는 금도 메리골드의 생기 도는 뿔만큼 가치가 없다.

호손의 마이다스 왕 이야기에는 원래 신화에 없는 어린 딸이 등장한다. 어린아이의 등장으로 이야기는 그저 어리석은 왕이 금에 탐욕을 부리다가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여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후회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원래 신화에 담긴 교훈은 물신주의와 탐욕의 어리석음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나 호손의 신화에는 그런 교훈 외에도 당대에 널리 퍼져 있던 아이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Brown 80).⁴⁴ 19세기 미국에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로서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선을 실현한다. 호손의 아동문학작품 중 많은 이야기들은 아이들에 관한 도덕적 주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선한 본성을 가진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메리골드는 마이다스 왕보다 우월한 도덕심을 가진 아이로 왕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게 하는 역할을 한다. 왕은 아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얻는 행복, 특히 딸인 메리골드와 함께 지내는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다. 딸에게 미래에 많은 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미의 아름다움과 향기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다. 아이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장려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당대의 인식이 여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⁴⁴ 아이가 어른보다 우월한 도덕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의 도덕적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19세기 금주에 관한 팸플릿과 노예폐지 문학이 보이는 주요한 특징이다(Brown 80-81).

호손은 아동문학작품을 통하여 일관되게 사회에서 아이들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그려내고 있다. 천성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은 타고난 선함으로 어른들을 감화시켜 도덕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마이더스 왕은 메리골드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탐욕에서 벗어난다. 이브라힘의 양아버지는 무구한 아이를 박해하는 청교도를 보면서 죄 없는 이브라힘과 같은 퀘이커교도가 된다. 애니의 화자는 아이들로 인해 어른들의 도덕성이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엘리스(Alice)가 꾸며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는 “어린아이의 생각이나 공상에는 이해하는 데 평생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이 종종 있다”고 생각한다(True Stories 20).⁴⁵ 펄은 『주홍글자』에서 헤스터나 딤즈데일이 사회와 화해하고 그 사회에 머물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⁴⁵ 원문은 다음과 같다: “Often, in a young child’s ideas and fancies, there is something which it requires the thought of a life time to comprehend” (True Stories 20).

제5장 결 론

19세기 중반은 미국에서 산업화에 따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는 등 정치적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기였다. 유럽 혁명 초기에 전제정치의 폐지와 공화정의 수립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던 미국의 지식인들은 혁명에 따르는 폭력과 무질서를 목격하고 혁명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난다. 혁명과정에서 나타나는 획일적인 통제와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혁명사상이 미국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반혁명적인 정서가 사회에 퍼지게 된다. 당시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던 노예제에서 노예폐지론자들이 혁명세력과 동일시되면서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진다. 비슷한 시각에서 프랑스혁명에 대해 양가적 반응을 보인 토크빌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그에게 혁명은 역사적 진보의 횃불이요 가능성이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공포요, 좌절이요, 실망이었다. 그가 혁명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거의 언제나 그것에 수반될 수 있는 혼란과 과격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혁명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계급간의 타협으로 점진적인 사회개혁...에 대한 그의 일생에 걸친 호의적 관심으로도 표출된다.
(신문수 255)

위와 같은 양면성에 대한 묘사는 호손을 포함한 19세기 중반의 많은 미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토크빌의 양면성이 그가 겪은 독특한 역사적 체험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주홍글자』에 드러난 호손의 양면성 또한 집필 당시에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급격한 변화를 체험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에 따른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과 물질주의로 인해 심화되고 있던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 부도덕한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가정에서 여성은 가족을 도덕적 존재로 이끌 수 있는 도덕적 품성을 갖춰 사회생활에 지친 남편에게 도덕적 재충전을 하게 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여 미국사회를 지탱해 나갈 역할을 부여 받는다. 당시에 인기를 끌던 가정생활을 위한 지침서에는 사랑을 통하여 아이를 도덕적인 존재로 키우는 이상적인 가정에서의 여가활동으로 독서가 예시되고 있다(Brodhead, “Spring the Rod” 90). 아이들을 원죄를 타고난 타락한 존재로 여기던 청교도적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아이들 양육에 대한 입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엄격한 훈육으로 본질적으로 사악한 품성을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양육 방식이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착한 천성을 이끌어내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면서 그 방법으로 독서가 강조되고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출판물 시장이 확장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19세기 중반 미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런 변화는 호손의 『주홍글자』에 잘 반영되어 있다. 17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는 17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사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호손이 살던 시대상이 많이 나타나 있다. 또한 「세관」에는 호손의 정치적 경험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으며 펄의 모습은 그의 딸 우나를 묘사한 기록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 역사가 시작된 17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사회와 호손이 글을 쓰던 19세기 중반 미국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의 개인적 경험과 삶의 모습이 서로 얽혀 녹아 있는 『주홍글자』에는 호손이 당대 사회에 가졌던 인식과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사랑 때문에 죄를 지은 헤스터는 주홍글자를 가슴에 달고 사람들의 경멸과 배척을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는다. 그녀는 죄의 결과로 태어난 펄을 키우며 침묵과 인내 속에서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와가며 그녀는 착실하게 쫓겨났을 치르지만 혼자 사색하면서 억압적인 사회체제의 모순을 깨닫고 급진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헤스터의 모든 것과 바꾼 소중한 존재인 펄은 그녀의 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차츰 과격해지는 불온한 사상을

행동으로 옮겨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주홍글자에 기대되는 소임을 해낸다. 소중한 펠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헤스터는 사회체제를 부정하는 급진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딸을 제대로 키우려고 노력한다. 그녀가 검소하고 겸허하게 봉사하는 생활을 해나가면서 주홍글자를 죄악시하던 주변의 시선은 달라지지만 헤스터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외롭게 지낸다. 평온해 보이는 헤스터의 내면은 세상과 고립되어 펠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과 새로운 깨달음 때문에 겪는 갈등으로 혼란스럽다. 덤즈데일이 죄의식과 칠링워스의 복수로 인해 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헤스터는 소중한 사랑을 위하여 사회를 등지고 덤즈데일과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한다. 덤즈데일과 유럽으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주홍글자를 떼어 버린 헤스터는 발작적인 펠의 반응 때문에 주홍글자를 다시 달게 된다. 펠은 다시 한 번 헤스터에게 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하는 주홍글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펠은 덤즈데일이 죄의식에 시달릴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는 습관을 눈여겨보고 이를 더러 언급하면서 목사가 죄를 고백하여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아버지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바란다. 목사가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덤즈데일은 내면세계에 사로잡혀 거리를 두었던 사회와 화해한다. 배신당한 복수심에 눈이 멀어 정체를 숨기고 덤즈데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져 사회와의 관계를 거부했던 칠링워스는 죽으면서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의 딸인 펠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 주홍글자와 같은 역할을 해온 펠은 덤즈데일의 고백과 칠링워스의 유산을 통해 사회의 적법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그 동안의 소외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에 통합된다. 보스턴을 떠났던 헤스터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펠이 유럽 어디에선가 가정을 이뤄 아이를 키우며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펠은 사회와 갈등을 겪던 헤스터, 덤즈데일, 칠링워스가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결말에 이르러 갈등에서 벗어나 사회체제 안에 머물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호손은 작품 활동을 하던 기간 내내 아동문학작품을 쓰면서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아이들이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아이들의 소중함과 올바른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선한 본성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의 천성적인 도덕성은 어른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한다. 상상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호손은 할아버지의 의자에 얽힌 역사적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에게 뛰어난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 그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맞먹는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Twice-Told Tales* 96). 호손의 아이들에 대한 이런 기대는 『주홍글자』에 등장하는 아이 펠에게도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

호손은 『주홍글자』의 집필을 마치고 나서 그 소설이 “아주 우울하여 어떻게 분위기를 밝게 해 볼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토로한다. 소설의 결말은 그의 부인 소피아를 상심하여 두통을 느끼고 괴로워하며 자리에 눕게 하였고 호손은 이에 소설이 “성공할 것을 예감한다”고 농담처럼 말한다(Bridge 124). 이 소설 때문에 독자들이 자신을 너무 음울한 작가로 여길 것에 대한 호손의 염려는 죄의식과 희망이 균형을 이룬 다음 장편 『일곱 박공의 집』(*The House of the Seven Gables*)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고 그 소설의 도덕적 균형이 자신의 성격에 더 부합하며 자신과 같은 사람이 쓰기에 더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소설이라는 의견을 표현하기도 한다.⁴⁶

⁴⁶ 호손은 친구 Bridge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On this last romance, for instance, I have heard and seen such diversity of judgment that I should be altogether bewildered if I attempted to strike a balance... I think it a work more characteristic of my mind, and more proper and natural for me to write, than ‘the Scarlet Letter’” (Bridge 140-41).

이것은 「세관」에서 호손이 『주홍글자』를 쓰는 이유를 단지 소설이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일 뿐이며 세관에서 자신이 겪은 정치적 좌절감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이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소설이 시작될 때 호손은 “인간의 연약함과 슬픔이 만들어내는 이 이야기의 음울한 결말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부드러운 미덕”(some sweet moral blossom)을 제시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다(37). 그러나 소설의 결말에서 그는 “너무 침울하여 그림자보다 어둡게 빛나는 한 점 빛”(166) 만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열정에 의한 죄로 인하여 외롭고 어두운 내면에 갇혀 살아가던 인물들은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사회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던 인물들이 끝내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묘비명에 어둡게 빛나는 주홍글자 A보다 훨씬 밝은 꺾은 줄을 존재하게 함으로써 호손은 그가 원하던 사회의 존속을 위한 ‘어떤 부드러운 미덕’을 제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⁴⁷ “The Custom House” had not done entirely its office (Colacurcio 6). 호손이 겪은 「세관」에서의 정치적 좌절감은 소설을 쓰던 당시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개인적 경험들과 함께 『주홍글자』가 어둡고 음울하게 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참고문헌

I. 1차 문헌

Hawthorne, Nathaniel. *The Blithedale Romance and Fanshawe*. Columbus: Ohio State UP, 1972. Print.

---. *The Life of Franklin Pierce*. Irvine: Reprint, 1992. Print.

---. *Mosses from an Old Manse*. Columbus: Ohio State UP, 1972. Print.

---. *True Stories from History and Biography*. Columbus: Ohio State UP, 1972. Print.

---. *A Wonder Book and Tanglewood Tales*. Columbus: Ohio State UP, 1972. Print.

---. *The Snow-Image and Uncollected Tales*. Columbus: Ohio State UP, 1972. Print

Hawthorne, Nathaniel, and Claude M. Simpson. *The American Notebooks*. Columbus: Ohio State UP, 1972. Print.

Hawthorne, Nathaniel, et al. *The Letters 1813-1843*. Columbus: Ohio State UP, 1984. Print.

Hawthorne, N. and G. K. Short. *Twice-told Tales*. New York: Modern Library, 2001. Print.

Hawthorne, N., et al. *The Scarlet Letter and Other Writings*. Ed. Person, L.S. New York: Norton, 2005. Print.

I . 2차 문헌

신문수. 「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사회비평』 16 (1996). 254-276

장왕록. 「식민지 시대 미국문학에 나타난 Puritanism과 그 거센 파장」. 『인문논총 14』.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인문과학연구소, 1985. 3-26.

Foucault, Michel, and 오생근.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서울: 나남, 2004. Print.

Abel, Darrel. "Hawthorne's Pearl: Symbol and Character." *ELH* 18.1 (1951): 50-66. Print.

Arac, J. "The Politics of the Scarlet Letter." *Ideology and Classic American Literature*. Ed. Bercovitch, S., and Jehlen, M.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P, 1986. 247-66. Print

Baym, N. "The Romantic Malgre Lui: Hawthorne in the Custom House." *The Scarlet Letter*. Ed. Gross, S., et al. Norton, 1988. 265-72. Print.

Bercovitch, S. "Hawthorne's a-Morality of Compromise." *Representations*. 24 (1988): 1-27. Print.

---. *The Office of the Scarlet Letter*. Johns Hopkins UP, 1992. Print.

Bridge, Horatio. *Personal Recollections of Nathaniel Hawthorne*. Honolulu, Hawaii: UP of the Pacific, 2004. Print

Brodhead, Richard H. *Hawthorne, Melville, and the Novel*.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76. Print.

---. "Sparing the Rod: Discipline and Fiction in Antebellum America."

- Representations* (1988): 67-96. Print.
- Brown, G. "Hawthorne's American History."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thaniel Hawthorne*. Ed. Millington, R.H. Cambridge UP, 2004. 121-42. Print.
- . "Hawthorne and Children in the Nineteenth Century: Daughters, Flowers, Stories." *A Historical Guide to Nathaniel Hawthorne*. Ed. Reynolds, L. J. Oxford: Oxford UP, 2001. 79-108. Print.
- Bushnell, H. *Discourses on Christian Nurture*. Massachusetts Sabbath School Society, 1847. Print.
- Cheever, G.B., and H.T. Cheever. *Voices of Nature to Her Foster-Child, the Soul of Man: A Series of Analogies between the Natural and the Spiritual World*. Vol. 10: C. Scribner, 1852. Print.
- Colacurcio, Michael J., ed. *New Essays on The Scarlet Letter*. Cambridge UP, 1985.
- Crandall, J.C. "Patriotism and Humanitarian Reform in Children's Literature, 1825-1860." *American Quarterly* 21.1 (1969): 3-22. Print.
- Daniels, Cindy Lou. "Hawthorne's Pearl: Woman-Child of the Future." *ATQ-KINGSTON* 19.3 (2005): 221-36. Print.
- Dunn, M.M. "Saints and Sisters: Congregational and Quaker Women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American Quarterly* (1978): 582-601. Print.
- Eisinger, Chester E. "Pearl and the Puritan Heritage." *College English* 12.6

(1951): 323-29. Print.

Emerson, Ralph Waldo, and Robert D. Richardson. *Ralph Waldo Emerson : Selected Essays, Lectures, and Poems*. New York ; Toronto: Bantam Books, 1990. Print.

Franzosa, J. "The Custom-House." *The Scarlet Letter and Other Writings*. Ed. Person, L.S. New York: Norton, 2005. 387-404. Print.

Garlitz, Barbara. "Pearl: 1850-1955." *PMLA* 72.4 (1957): 689-99. Print.

Giles, H. *Illustrations of Genius, in Some of Its Relations to Culture and Society*. Ticknor and Fields, 1854. Print.

Gilmore, M.T. "Hidden in Plain Sight: The Scarlet Letter and American Legibility." *Studies in American Fiction* 29.1 (2001): 121-28. Print.

Haroutunian, J. *Piety Versus Moralism: The Passing of the New England Theology*. Harper & Row, 1970. Print.

Herbert Jr, T.W. "Nathaniel Hawthorne, Una Hawthorne, and the Scarlet Letter: Interactive Selfhoods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Gender."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88): 285-97. Print.

Holmes, E.M. "Hawthorne and Romanticism." *The New England Quarterly* 33.4 (1960): 476-88. Print.

Ireland, R.M. "The Libertine Must Die: Sexual Dishonor and the Unwritten Law in the Nineteenth-Century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al History*

- (1989): 27-44. Print.
- Laffrado, L. *Hawthorne's Literature for Children*. U of Georgia P, 1992. Print.
- . "Hawthorne 2.0." *Nathaniel Hawthorne Review* 36.1 (2010): 28. Print.
- Loring, G.B. "Hawthorne's Scarlet Letter." *Rev. of The Scarlet Letter, by Nathaniel Hawthorne. Massachusetts Quarterly Review* 3 (1950): 484-500. Print.
- Maibor, C.R. *Labor Pains: Emerson, Hawthorne & Alcott on Work, Women & the Development*. Routledge, 2004. Print.
- Male Jr., R.R. "'From the Innermost Germ': The Organic Principle in Hawthorne's Fiction." *ELH* (1953): 218-36. Print.
- McLoughlin, W.G. "Evangelical Childrearing in the Age of Jackson: Francis Wayland's Views on When and How to Subdue the Willfulness of Children." *Journal of Social History* (1975): 20-34. Print.
- McNamara, A.M. "The Character of Flame: The Function of Pearl in the Scarlet Letter." *American Literature* 27.4 (1956): 537-53. Print.
- Miller Jr., J.E. "Hawthorne and Melville: The Unpardonable Sin." *Publication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55): 91-114. Print.
- Mitchell, Thomas R. "Hawthorne." *American Literary Scholarship*. Duke UP, 2004. 31-49. Print.
- Murfin, R.C. "What Is the New Historicism?" *Nathaniel Hawthorne The Scarlet*

- Letter*. ed. Murfin. R. C. Boston: Bedford Books of St. Martin's Press, 1991. 330-44. Print.
- Nudelman, Franny. "'Emblem and Product of Sin': The Poisoned Child in the Scarlet Letter and Domestic Advice Literature." *The Yale Journal of Criticism* 10.1 (1997): 193-213. Print.
- Pestana, C.G. "The City Upon a Hill under Siege: The Puritan Perception of the Quaker Threat to Massachusetts Bay, 1656-1661." *The New England Quarterly* 56.3 (1983): 323-53. Print.
- Pfister, Joel. *The Production of Personal Life: Class, Gender, and the Psychological in Hawthorne's Fiction*. Stanford, Calif.: Stanford UP, 1991. Print.
- Reynolds, D.S. *Beneath the American Renaissance: The Subversive Imagination in the Age of Emerson and Whitman*. Cambridge: Harvard UP, 1988. Print.
- Reynolds, L.J. "The Scarlet Letter and Revolutions Abroad." *American Literature* 57.1 (1985): 44-67. Print.
- Sanchez-Eppler, K. "Hawthorne and the Writing of Childhood."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thaniel Hawthorne*. Ed. Millington, R.H. Cambridge UP, 2004. 143-151. Print.
- Stouck, D. "The Surveyor of the Custom-House: A Narrator for the Scarlet Letter." *The Scarlet Letter*. Ed. Gross, S., et al. Norton, 1988. 255-65.

Print.

Thomas, Brook. "Citizen Hester: The Scarlet Letter as Civic Myth." *American Literary History* 13.2 (2001): 181-211. Print.

Tocqueville, Alexis de, et al. *Democracy in America: And Two Essays on America*. London: Penguin, 2003. Print.

Valenti, Patricia D. "'None but Imaginative Authority': Nathaniel Hawthorne and the Progress of Nineteenth-Century (Juvenile) Literature in America." *Nathaniel Hawthorne Review* 36.1 (2010): 1-27. Print.

Voloshin, B.R. "The Limits of Domesticity: The Female Bildungsroman in America, 1820–1870." *Women's Studies: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0.3 (1984): 283-302. Print.

Abstract

*The Scarlet Letter: The Conflict
between the Main Characters and Society
and Pearl's Role*

Youngja Ahn
English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Nathaniel Hawthorne's *The Scarlet Letter*,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characters and society and Pearl's role in the relationship. Pearl's role reflects Hawthorn's interest in the children's role in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society. The romance is about the passion and sin of the protagonists which put them in conflict with the strict Puritan community. It is my argument that the individuals who had been in conflicts with society eventually became reconciled with it, and Pearl played the central role in the process of the reconciliation. The reconciliation expedited by the child, Pearl brightened the gloomy close of the romance. Hawthorne believed that children played important roles for the stable and sound society.

This thesis consisting of five chapters, Chapter 1 gives an overview of the thesis. It begins with the significance of Pearl's birth as the main caus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protagonists and society, followed by her role in mediating the conflicts. The historical setting for *The Scarlet Letter* is the Puritan society of

New England in the mid 17th century. The romance, however, reflects the author's contemporary political, social situation and his anxiety about the social disturbance at that time. The reconciliation of the individuals with the community reflects his wish for the united and harmonious society. Pearl's role in the reconciliation shows Hawthorne's expectation for the children in the continuation of society.

Chapter 2 follows the progression from the protagonists' alienation to their return to society. *The Scarlet Letter* shows how the individuals underwent the suppression of the puritan society. They were repelled and alienated from society by the strict rules and the rigid attitudes of the puritans and led isolated lives owing to their passion and sin. Hester who had committed adultery did not confirm the rules in her deepest heart which prohibited the sanctity of love. Dimmesdale who represented the Puritan society as a minister kept his sin a secret and stayed a hypocrite in order to defend his honorable social status. His behavior was the betrayal of God and he suffered severely from a guilty conscience, which was the main factor in his internal breakaway from society. Chillingworth is described as an unpardonable sinner peeping into a human being's soul. Torturing Dimmesdale, he detached himself from society and degenerated into a wicked devil. The protagonists' isolation, however, did not result in severance of the connection with society. Hester came back to New England which she had left with Pearl after Dimmesdale's death and resumed the scarlet letter. Dimmesdale recognized that he could not endure hypocrisy any longer with which he had deceived his conscience and God. As he confessed his sin in front of people, he could be released from the sin. Chillingworth realized that he had been brought to ruin in the process of revenge.

Chapter 3 deals with Pearl's role as a link between the individuals and society. Pearl, the illegitimate daughter of Hester and Dimmesdale, functioned as a living scarlet letter which socialized the sinned characters. She exhibited an

uncanny concern for Hester's scarlet letter even when she was a baby. By her inquisitiveness about the minister's habit of placing his hand over his heart, Pearl connected these two seemingly unrelated phenomena. The responsibility as the mother raising Pearl caused Hester to conform to the rules of society despite her reformative ideas about them. Pearl made her restore the discarded scarlet letter when Hester decided to leave society with her lover. Furthermore, Pearl expressed tacitly her disapproval of Dimmesdale's concealing the sin and hinted to him that he should reveal his sin and the paternal relationship with her as the only means of his redemption. Chillingworth bequeathed all of his property to Pearl as a gesture of reconciliation with his betrayers and society and remained as a member of society.

Chapter 4 is allotted to the explanation of the connection between Pearl's role and Hawthorne's juvenile literature. He showed his interests in children's role in society by writing children's stories all his life. Hawthorne's expectation for children's role in the continuation of society is reflected in Pearl's role as a mediator in conflicts. Finally, each chapter's main points are summarized in Chapter 5.

Key Words: sin, individual, reconciliation, connection, socialization, juvenile literature,

Student Number: 2011-21528